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79호 【루계 제23031호】 주체99(2010)년 3월 20일(토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로씨야 챠이꼽스끼명칭 모스크바 국립음악대학에서 선물을 보내여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로씨야 챠이꼽스끼명칭 모스크바국립음악대학에서 선물을 보내여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보내여온 선물을 우리 나라를 방문한 로씨야 챠이꼽스끼명칭 모스크바국립음악대학 총장 알렉싼드르 쏘꼴로브가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알제리민족해방전선당 제9차대회에 축전을 보내였다

알좌자이르

알제리민족해방전선당 제9차대회 앞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알제리민족해방전선당 제9차대회를 열렬히 축하하며 대회를 통하여 귀당의 전체 당원들에게 친선적인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이번 대회가 당을 강화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귀당의 투쟁에서 중요한 계기로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당사이에 맺어진 오랜 친선협조관계가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에 따라 앞으로 더욱 확대발전되리라고 믿으면서 대회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체99(2010)년 3월 19일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23호 주체99(2010)년 3월 1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회의를 주체99(2010)년 4월 9일 평양에서 소집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소집에 대한 공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회의를 주체99(2010)년 4월 9일 평양에서 소집함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에게 알린다.

대의원등록은 주체99(2010)년 4월 7일과 8일에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주체99(2010)년 3월 18일 평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 통신, 방송이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대고조로 들끓고있는 희천시내 공장들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11일 중국과 로씨야의 통신, 방송이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의 **김정일**최고령도자께서 희천시내 공장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공장들이 생산공정의 과학화를 적극 추진하며 나라의 공업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는데 적극 기여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오늘의 지식경제시대에는 첨단기술의 개척자가 미래의 정복자이고 승리자라고 하시면서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첨단을 돌파하며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자!》는 구호를 추켜들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현대화를 강력히 추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최신기술로 장비된 자립적경제토대가 있기에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일으키려는 조선로동당의 구상은 반드시 빛나게 실현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CNC화가 실현될수록 생산자들의 높은 기술기능을 요구하고있다고 하시면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광범히 벌려 생산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중국 홍콩 봉황위성TV방송, 로씨야의 이따르—따쓰통신과 인터네트통신 《브즈글랴드》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3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 통신, 방송이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해영농전투에 진입한 사리원시 3중3대혁명붉은기 미곡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의 **김정일**최고령도자께서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전국, 전민이 농사에 계속 총력량을 집중하여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오늘의 농업발전추세는 화학비료와 화학농약을 쓰지 않는 유기농법이라고 하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기농법을 비롯한 새로운 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중국 홍콩 봉황위성TV방송과 로씨야의 이따르—따쓰통신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라오스통신은 **김정일**총비서께서 혁명적대고조로 들끓고있는 희천시내의 공장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총비서께서는 먼저 현대적으로 꾸려진 칠성전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관작업반을 비롯한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기술개건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고 기술혁신운동을 광범히 벌려 전기제품의 질을 급격히 높인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총비서께서는 희천도자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생산실태에 대한 해설을 들으신 다음 공장에서 자력으로 건설한 내화벽돌생산공정을 돌아보시면서 연구개발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비상한 창조력을 발휘하여 조선의 원료에 의거한 내화벽돌생산체계를 확립한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투쟁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총비서께서는 조선식의 CNC화를 전면적으로 훌륭히 실현한 희천공작기계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의 로동계급이 강계정신의 창조자들답게 완강한 의지력으로 기계제작공업을 단연 세계적수준에 끌어올렸다고 하시면서 CNC기술의 패권을 확고히 틀어쥔것은 선군시대에 이룩된 또 하나의 자랑찬 승리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희천공작기계종합공장은 나라의 기계제작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총비서께서는 공장들을 현지지도하신 후 희천시 대흥동에 위치한 금수골혁명사적지를 돌아보시였다.

금수골혁명사적지는 **김일성**주석께서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인 1953년 2월 26일과 28일 이곳에 계시면서 나라의 기계공업발전방향과 희천정밀기계공장이 나아갈 휘황한 전망을 펼쳐주신 력사적인 장소이다. **김정일**총비서께서는 **김일성**주석은 천리혜안의 예지와 선견지명으로 가렬한 전화의 나날에 벌써 승리한 조국의 래일의 설계도를 펼쳐주신 희세의 위인이시라고 하시면서 강성대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여 그이의 평생소원을 하루빨리 풀어드리자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주체사상에 관한 베네수엘라전국토론회 진행

주체사상에 관한 베네수엘라전국토론회가 2월 26일 팔꼰주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장정면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토론회에는 베네수엘라 팔꼰주의회, 주체사상연구 베네수엘라전국협회와 산하 여러 소조들, 베네수엘라조선친선 및 련대성협회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주체사상연구 베네수엘라전국협회 위원장 오마르 로뻬스와 베네수엘라조선친선 및 련대성협회 위원장 디에고 안또니오 리베로를 비롯한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하여 깊이있게 해설론증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주체사상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발전풍부화시키신다고 하면서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선혁명과 인류자주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는데 대하여 칭송하였다.

그들은 **김정일**령도자의 사상리론은 자주적인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고있다고 격찬하였다.

토론자들은 우리 인민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고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을 더욱 적극화해나갈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혁명투사 김일동지 생일 100돐기념

중앙보고회 진행

【평양 3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혁명투사 김일동지 생일 100돐기념 중앙보고회가 19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보고회장정면에는 혁명승리의 표대인 붉은기가 펼쳐져있었으며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주석단배경에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상징하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모형이 걸려있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위대한 장군님의 추억속에 영생하는 열혈충신이 되자!》라는 구호들이 보고회장에 나붙어있었다.

보고회에는 당, 무력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장병들, 혁명렬사유가족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김영남동지, 김영일동지, 김영춘동지, 리용무동지, 오극렬동지, 김일철동지, 김기남동지, 양형섭동지, 최영림동지, 김철만동지, 리을설동지와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당, 무력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책임일군들, 공로자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보고회는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인 양형섭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회는 혁명선렬들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며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당창건 65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내이려는 전체 참가자들의 혁명적열정이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였다.

보고회는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받들고 농업생산의 선봉에서 달려나가자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농업근로자들의 궐기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농업근로자들의 궐기모임이 19일에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최룡해 황해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 관계부문 일군들, 농장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사리원시당위원회 책임비서 양명철의 보고에 이어 기사장 조룡남, 작업반장 정성명, 분조장 김옥경, 미곡혁명사적관 책임강사 김영애가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미곡협동농장을 또다시 찾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개건된 혁명사적관을 돌아보시면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알곡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이고 농장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일신시키는 놀라운 변혁을 일으켜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였다고 하시며 지난 기간 농장이 이룩한 자랑찬 위훈을 높이 평가하신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들은 찬바람부는 논두렁길을 몸소 걸으시며 영농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농사차비를 빈틈없이 갖추고 새해영농전투에 진입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며 농장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농장의 기후풍토에 맞는 우량품종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힘있게 추진시키며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을데 대한 문제, 각종 농기계들의 리용률을 더욱 높일데 대한 문제 등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는 미곡협동농장이 선군시대 본보기농장으로서의 영예를 더욱 빛내여나가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획기적인 계기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농장이 농업생산에서 계속 선봉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주공전선을 지켜선 책임감을 간직하고 우렁이에 의한 논비배관리방법을 완성하는 등 유기농법을 비롯한 새로운 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각종 농기계들을 더 많이 창안제작하여 기계화비중을 높여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백두산천출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당의 원대한 농촌건설구상을 현실로 꽃피우는데서 앞장섬으로써 당창건 65돐이 되는 올해에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는데 기여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고산과수농장이

현대적인 대규모과일생산기지로 건설된다

우리 인민에게 맛좋은 과일을 더 많이 공급하려는 당의 원대한 구상과 크나큰 은정속에 고산과수농장이 현대적인 대규모과일생산기지로 건설되고있다.

모든 과수밭을 청춘과원으로 만들고 과일농사를 과학화, 현대화할데 대한 공동구호의 정신을 심장에 새긴 618건설돌격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건설에서 련일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나라의 과수업발전에 계속 깊은 관심을 돌려 후대들에게 보다 살기 좋은 사회주의무릉도원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지난해 6월 또다시 고산과수농장을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과일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자면 이 과수농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꾸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과학적인 전망계획에 따라 기초건설로부터 과수원정리, 관수체계수립 등 모든 건설을 통이 크게 벌릴데 대한 구체적인 과업을 밝혀주시였다.

618건설돌격대 지휘부와 과수련합총회사 과수설계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의 능력있는 설계가들과 연구사들이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방대한 건설의 총계획설계를 짧은 기간에 완성하였다.

농장을 현대화된 대규모과일생산기지로 꾸리기 위한 건설은 수천정보의 토지정리와 과수원조성, 과일가공공장과 과일저장고, 돼지목장건설 등 매우 방대한것으로서 여러 단계로 나뉘여 진행되게 된다.

618건설돌격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를 높이 들고 통이 크게 작전하고 대담하게 일판을 벌려 매일, 매 시각 새로운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결사관철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과수농장을 현대적인 대규모과일생산기지로 훌륭히 꾸리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돌격대원들은 지금 1단계토지정리전투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

평성시대대의 돌격대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영광의 땅을 대규모과일생산기지로, 만년대계의 재부로 꾸려나간다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진격의 맨 앞장에서 달리고있다. 황해남도려단의 일군들은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처럼 전투장에 뛰여들어 화선식정치사업과 대담한 작전, 통이 큰 일본새로 대중의 심장에 불을 지피면서 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1단계건설과제를 최상의 수준에서 끝낼 혁명적열정안고 떨쳐나선 함경북도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도 목표를 높이 세우고 완강하게 실천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는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갈 불타는 마음안고 떨쳐나선 자동차운전사들과 돌격대원들은 매일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해나가고있다.

현대적인 고산과수농장건설은 618건설돌격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헌신적인 투쟁과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더욱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글 본사기자 황연옥
사진 본사기자 리명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일부 아프리카나라 방문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곧 가봉공화국, 세네갈공화국, 감비아공화국을 공식친선방문하게 된다.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시는 자애로운 어버이

뜻깊은 올해를 인민의 행복이 넘치는 번영의 해로 되게 하여 가까운 앞날에 기어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고야말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새길수록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그처럼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모습이 숭엄히 안겨와 가슴젖어듦을 금할수 없다.

온 나라 인민이 축원의 인사를 올리는 이해의 첫날에도 자신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나 인민들을 잘 살게 할 생각밖에 없다고, 경공업과 농업전선에 다시한번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새해에도 강행군을 계속하겠다고 결연히 선언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

인민생활향상, 바로 여기에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시기 위하여 천만가지 고생도 락으로 여기시며 불멸의 강성대국건설사를 수놓으시는 우리 장군님의 기쁨과 행복의 전부가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하는것, 이것이 나의 삶의 목표이고 보람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인민이 있다. 인민의 행복에서 제일 큰 기쁨을 찾으시고 가장 큰 락을 느끼시는분이 우리 장군님이시다.

낮이나 밤이나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늘 마음쓰시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진군길의 이 시각에도 인민생활문제때문에 끝없는 사색의 세계를 펼쳐가시고 헌신의 장정을 이어가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인민들의 기쁨속에 자신의 기쁨이 있고 인민들의 행복속에 자신의 행복이 있다고, 인민들이 좋아하면 더 바랄것이 없다고 하시며 인민의 행복과 기쁨에서 혁명하는 긍지와 삶의 보람을 느끼시는 우리 장군님 같으신 위대한 어버이가 이 세상 그 어디에 또 있으랴.

새해벽두부터 희천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며 올해 혁명실록의 첫 페지를 새기신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모습이 우렷이 안겨온다.

우리의 리상이 실현되여가는 기쁨속에 희망찬 새해를 맞이한 환희가 온 나라에 굽이치고있던 때에 눈덮인 험한 령들을 넘고넘으시며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30℃의 강추위속에서 불면불휴의 강행군자욱을 새기신 경애하는 장군님,

올해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세의 해로 빛내이는데서 희천발전소건설은 자못 중요하다.

눈덮인 령길을 넘고 헤치시며 건설장을 찾으시여 불멸의 자욱을 아로새기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 온 나라에 인민생활향상의 새로운 열풍이 휘몰아치게 하고있다.

력사적인 이해의 첫 현지지도를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가 창조된 시대의 격전장에 새기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희천발전소건설장에 대한 현지지도는 세기를 주름잡는 비약의 속도로 더 높이, 더 빨리 내달려 하루빨리 이 땅우에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시려는 백두산선군령장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의 분출이였고 천만군민을 총돌격에로 부른 위대한 령도자의 힘찬 호소였다.

흐르는 분과 초가 그대로 비약과 혁신이고 그 열정의 도가니속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과 위훈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는 희천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며 머지않아 불밝은 거리들에서 울릴 인민의 기쁨넘친 웃음소리를 들으시고 승리의 만세소리가 강산을 진감할 그날을 그려보시며 격정을 금치 못해하신 우리 장군님,

흐르는 땀방울도 순간에 얼어붙는 혹한속에서 정력적으로 발전소건설을 현지지도하시며 우리 힘을 합쳐 승리의 그날을 기어이 앞당겨오자고 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간곡한 호소에서, 펑펑 쏟아지는 흰눈을 맞으시며 증산의 불길 세차게 타오르는 재령광산을 돌아보시는 절세의 위인의 정력에 넘치신 모습에서, 례성강청년2호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하여 올해 정초부터 끊임없이 전해지는 그이의 혁명활동소식들에서 천만군민은 내 조국땅에 꽃피는 만복이야말로 우리 장군님께서 인민을 위한 류례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가꾸시고 꽃피우시는 고귀한 결실임을 심장으로 더욱 깊이 절감하였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세의 해인 주체99(2010)년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할데 대한 문제에 큰 의의를 부여하신 경애하는 장군님,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라는 이 문구에 강선땅에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지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시기 위하여 경공업과 농업부문의 수많은 단위들에 대혁신, 대비약의 억센 나래를 달아주시며 수놓으신 불멸의 강행군실록이 담겨있고 어머니당창건 65돐을 맞는 이해에 기어이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이 맥박치고있다.

가시는 곳, 이르시는 단위들마다에서 우리 인민들을 더 잘 먹이고 잘 해입혀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도록 내세우시기 위해 그토록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삼일포특산물공장을 찾으면 우리 인민들에게 제일 좋은것을 마련해주자는것이 당의 의지이고 결심이라고 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우렁우렁한 음성이 금시 울리는듯싶어 격정을 금할수 없고 평양방직공장에 가면 우리 인민에게 더 좋은 옷을 해입히려는것은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라고 하시면서 천생산에 큰 힘을 넣어 입는 문제해결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하시던 절세의 위인의 거룩한 모습이 뜨겁게 안겨온다.

우리 장군님께서 한해에 세번씩이나 현지지도하신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의 드넓은 벌에 서면 사회주의경쟁의 혁명적불길로 온 나라의 알곡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안아오신 걸출한 위인의 비범한 령도가 숭엄히 안겨오고 선군11경을 자랑하는 원흥땅에서는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의 거룩한 손길아래 시대를 격조높이 웅변하는 희한한 과일바다가 어떻게 펼쳐졌는가에 대한 자랑스러운 대답이 힘있게 울리고있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 평양껌공장, 원산유리병공장, 원산구두공장, 회령기초식품공장, 중앙은행 회령지점, 만포방사공장, 만포각, 고산과수농장, 새로 건설된 보통강상점, 구장양어장, 신창양어장, 대동강식료공장, 대동강타일공장, 평양메기공장, 타조목장,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태천군 은흥협동농장, 새로 건설된 만수대거리의 살림집들, 평양곡산공장…

한해동안에만도 지난 10년을 합친것보다 더 먼 렬차행군을 하시며 우리 장군님께서 찾으시였던 그 수많은 단위들에서 나의 기쁨은 언제나 인민들의 행복속에 있다, 나는 인민들이 행복하게 잘살수만 있다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겠다, 내가 지금 매일과 같이 군대와 공장, 기업소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 대한 현지지도를 하는것은 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이다라고 말씀하시던 그이의 숭고한 의지가 얼마나 뜨겁게 빛발치고있는것인가.

격동적인 150일전투의 나날이 흐르던 지난해 7월의 어느날 자신께서도 최고사령관이기 전에 인민을 사랑하고 동지들을 사랑하는 진정한 인간이라고 그리도 절절히 말씀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다.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시기 위해 불멸의 혁명실록을 수놓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행군로정을 따라 인민생활부문에서는 눈부신 비약이 이룩되고 강성대국대문을 두드리는 소리들이 련속 울려퍼지고있다.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것을 우리 당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시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그토록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는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 보다 풍성한 열매로 주렁질 주체99(2010)년,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인민의 행복이 넘치고 천만가지 리상이 현실로 꽃펴나는 극적인 전환의 시대에 살며 혁명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전당적, 전국가적인 힘을 인민생활향상에 총집중할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내 나라의 푸른 하늘아래 하루빨리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울 불같은 열의에 넘쳐있다.

우리 천만군민은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시기 위하여 올해 정초부터 초강도강행군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심장의 박동에 마음과 발걸음을 맞추며 더 높이, 더 빨리 내달려 당창건 65돐과 조국해방 65돐을 맞는 올해를 인민생활에서 변혁이 일어나는 해,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는 해로 자랑스럽게 빛내일것이다.

본사기자 김준혁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헌신의 길에서

더욱 굳히신 결심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경성군 상온포협동농장에 새로 일떠선 문화주택마을을 돌아보실 때의 일이다.

어느 한 집을 찾으시여 집구경을 좀 하자고 들렸다고 하시며 방안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손수 방바닥도 짚어보시고 가운데방에 놓인 텔레비죤이 잘 나오는가 스위치도 넣어보게 하시였으며 알른거리는 가마목, 찬장에 반짝이는 그릇들을 둘러보시고서는 함경도사람들이 세간살이를 잘한다고 치하도 해주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미닫이문도 움직여보시고 토방에서 방안으로 들어오는 사이에 있는 복도도 살펴보시며 여러모로 건설을 잘하였다고 만족스럽게 말씀하시였다.

훌륭히 꾸려진 새 문화주택에서 우리 농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쁘시였으면 우리 장군님 마을을 떠나오신 뒤에도 오늘 돌아본 상온포 새 문화주택들을 정말 잘 지었다고, 건설자들에게 나의 감사를 전하라고, 우리 농민들이 잘사는것을 보니 정말 기쁘다고 말씀하시였겠는가.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오늘 돌아본 전기난방화되고 갖출것을 다 갖춘 그런 좋은 집을 하루빨리 우리 인민들모두에게 주려는것이 나의 결심이다, 나는 마을을 떠나오면서 나의 그 결심을 다시한번 굳혔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처럼 어려웠던 시련의 시기에 강성대국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 인민의 행복커가는 내 나라, 내 조국의 오늘의 자랑찬 현실을 결코 생각할수 없다.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께서는 늘 현지지도의 길에 계신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림없이 끊임없이 걷고걸으시는 그이의 거룩한 자욱자욱은 그대로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 애국애민의 성스러운 장정이다.

10년전 6월 어느날이였다.

그날 녕변지방의 낮기온은 34℃를 기록하고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러한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녕변견직공장을 찾으시여 여러 직포직장들을 돌아보시며 비단의 질과 색갈, 직포공들의 비단짜는 솜씨도 구체적으로 보아주시였다.

그이의 웃옷은 어느새 땀으로 젖어들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주 손수건을 이마로 가져가시였으며 어떤 때에는 안경까지 벗어들고 연방 땀을 훔치기도 하시였다.

공장일군은 솟구치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위대한 선군혁명령도로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위업을 이룩하시느라 피로가 겹쌓이시였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찌하여 굳이 이 더운 때에 우리 공장을 찾으신것이랴.

이러한 일군의 속마음을 헤아려보신듯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나는 요즘 어떻게 하면 질좋은 비단과 비로도를 많이 생산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은 옷을 해입히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많이 생각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오늘 이 공장을 찾아왔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리성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뚜니지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뚜니스

뚜니지공화국 대통령

진 엘 아비딘 벤 알리각하

나는 뚜니지공화국 국경절 54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할것과 아울러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99(2010)년 3월 19일 평 양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들의 입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쳐오신 불멸의 령도를 가슴깊이 새긴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구 름 《양 산》

하늘이 낸 위인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성스러운 선군혁명실록의 갈피마다에는 전설같은 이야기들이 수없이 새겨져있다. 그가운데는 신비스러운 구름 《양산》에 대한 일화도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가 주체혁명위업을 계승해나가는 령도자로서 인민들의 존경과 사랑, 칭송을 받고있는것은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주체86(1997)년 7월 27일에 있은 일이다.

새벽부터 바람 한점 없더니 아침해가 떠오르기 바쁘게 대지가 확확 달아오르며 무더위가 한층 더해졌다.

뜻깊은 전승절을 맞이한 그날 아침 어느 한 구분대의 녀성군인들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휩싸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그들의 초소에 찾아오시였던것이다.

녀성군인들이 보고싶으시여 뜨거운 뙤약볕도, 찌물쿠는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멀고 험한 길을 달려오신 경애하는 장군님,

야전차에서 내리신 그이께서는 열광적인 환호를 올리는 군인들에게 답례를 보내시며 자신께서는 오늘 조국해방전쟁승리 44돐을 뜻깊게 맞고있는 군인들을 축하해주러 왔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꿈결에도 그립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무더운 여름날에 자기들의 초소를 찾아주시였으니 녀성군인들은 목메여오름을 금치 못하였다.

그들의 심정을 헤아리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없다고, 자신께서는 무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나 인민군부대들을 찾아가 군인들과 함께 있을 때가 제일 기쁘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친어버이사랑을 안고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르며 눈굽적시던 녀성군인들은 이날 펼쳐진 광경앞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푸르청청한 하늘에 떠있는 햇솜같은 한송이의 커다란 구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구분대에 도착하시여 차에서 내리시는 순간에 어디선가 나타난 구름이였다. 그런데 그냥 흘러갈 줄로만 알았던 그 구름송이가 놀랍게도 움직이지 않고 양산처럼 중복의 뙤약볕을 가리우고있는것이였다. 때를 같이하여 구분대가 자리잡고있는 곳으로는 싱그러운 바다바람까지 선들선들 불어왔다.

더우기 놀라운것은 그 구름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걸음을 옮기실 때마다 따라서 움직이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녀성군인들의 화력복무훈련을 보아주시고나서 구분대병실로 들어가실 때에는 점점 흩어지며 흔적없이 사라지는가싶더니 그이께서 침실과 교양실, 식당을 돌아보시고 밖으로 나오시는 순간엔 다시 뭉치며 뙤약볕을 가리워드리는것이 아닌가.

참으로 신비한 자연의 조화였다.

그후 이 구분대의 녀성군인들은 한결같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건강과 안녕을 간절히 바라는 자기들의 마음이 하늘에 닿아 하늘도 그이께 《양산》을 펼쳐드린것이라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뜻깊은 전승의 날 유별나게 녀병사들의 초소하늘가에 끼였던 구름 《양산》은 군인들의 가슴마다에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야말로 하늘이 낸 위인이시라는 흠모심을 새겨주며 영원히 지울수 없는 흔적을 남기였다.

본사기자 황명희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으시고

우리 당과 혁명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수십성상에 걸치는 선군혁명력사의 갈피에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혁명과 건설에 철저히 구현하여오신 인민적령도의 숭고한 서사시가 감동깊이 아로새겨져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이것이 당의 일관한 구호이며 일군들이 군중과 한순간도 떨어져서는 안된다는것이 당의 요구입니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이 구호에는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우리 장군님의 이민위천사상이 집약되여있다.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우리 당령도사를 인민을 위한 헌신의 력사로 수놓으신 바로 여기에 인민의 어버이로서의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이 있다.

하나의 로선과 정책을 세워도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세우고 당과 국가활동의 모든것이 인민적인것, 대중적인것으로 일관되여야 한다는것이 요구를 반영하여 정책을 세우며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하는것을 철칙으로 하였다고, 때문에 언제나 인민의 지지를 받아왔으며 오늘도 인민의 지지를 받고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혁명의 지휘성원들이 대중의 지지를 받는다는것은 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일한다는것을 의미하며 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것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으로 된다고 하시였다.

그후에도 당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일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할 때에만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수 있고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인민의 참된 복무자가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어떻게 살며 일해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보여주신 우리 장군님이시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이 구호에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돌우에도 꽃을 피우는것과 같은 심혈을 기울이시며 헌신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령도풍모가 얼마나 뜨겁게 구현되여있는가.

몇해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삼수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여 침수지역 주민들의 생활보장문제와 관련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신 사실은 일군들이 인민의 리익을 사고와 실천의 중심에 놓고 일해나간다는것이 어떤것인가를 보여주는 귀중한 본보기로 된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풀어야 할 기본문제는 침수지역에서 철거하는 주민들의 생활보장문제이라고, 몇만kW의 전기보다 여기에서 철수하는 주민들의 생활이 더 중요하다는것을 명심하고 침수지역 주민들의 생활문제를 말로가 아니라 실천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인민들의 생활을 당이 돌보고 나라가 돌봐주는것이 바로 로동당의 정책이고 우리 당의 군중로선이라고 절절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신듯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리익을 옹호고수하는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일군들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기초를 이루는 인민에 대한 옳은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철거세대 주민들의 생활보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후 침수지역 주민들이 살림도구까지 훌륭히 갖추어진 현대적인 살림집들에 새집들이를 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였을 때 우리 장군님 얼마나 기뻐하시였던가.

이렇듯 커가는 인민의 행복속에서 자신의 기쁨을 찾으시며 우리 장군님께서 끊임없이 이어가신 선군길이 그 얼마인지 모른다.

찾으시는 곳마다에서 인민을 위해 애써 일하는 일군들을 만나시면 더없이 기뻐하시며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혁명전우, 진정한 동지라고 친근하게 불러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그 위대한 사랑에 떠받들려 얼마나 많은 일군들이 대중으로부터 《우리》라는 칭호로 불리우는 인민의 충복으로 자라났던가.

《우리 책임비서》, 《우리 지배인》, 《우리 리당비서》, 《우리 관리위원장》…

그들속에는 군살림살이를 훌륭히 꾸려 경애하는 장군님으로부터 일잘하는 책임비서라는 값높은 평가를 받아안은 일군도 있고 북방의 척박한 땅에서 세벌농사를 성공시켜 우리 장군님께 기쁨드린 녀성관리위원장도 있으며 장군님께서 농촌당일군의 전형으로 내세워주신 리당일군도 있다.

선군시대의 참된 일군들에게 있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나가는것보다 더 큰 영예와 보람은 없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의 참뜻을 심장에 새기고 인민의 복무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는 참된 일군들이 무성한 숲을 이루고있기에 뜻깊은 올해에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이 일어날것이다.

본사기자 렴철호

깊이 새겨주신 영웅의 넋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끝없이 이어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장정은 우리 군인들의 가슴에 애국의 넋을 억척같이 심어주어 빛나는 위훈과 용맹에로 떠밀어주는 성스러운 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국에 대한 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오늘 세대교체가 일어나고있는 조건에서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섭니다.》

주체93(2004)년 5월 어느날 최전연의 한 인민군부대를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의 소박한 예술소품공연도 보아주시였다.

교양실에서 진행된 예술소품공연가운데서 류다른 감명을 자아낸것은 한 군인이 손풍금을 타면서 읊는 시 《나의 조국》이였다.

시를 다 들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시를 읊은 병사를 대견하게 바라보시며 손풍금을 타면서 시까지 읊는것을 보니 재간이 있다고, 잘한다고 만족해하시였다.

병사의 소박한 시랑송에서 군인들의 가슴속에 끓고있는 불타는 조국애를 헤아려보시였기에 우리 장군님 그토록 기뻐하시는것 아니랴.

군인들의 공연을 보시고 밖으로 나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오늘 공연을 보니 군인들의 사상정신세계가 아주 높다고, 방금 공연에서 본것처럼 군인들에게 조국애를 깊이 심어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리수복영웅이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 싸운것은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정신을 지니였기때문이라고, 리수복영웅이 조국을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는것은 그가 쓴 시를 보아도 잘 알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전화의 영웅이 남긴 시의 구절을 되새기시는듯 잠시 말씀을 끊으시였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강조하시였다.

군인들에게 조국애를 심어주자면 조국이란 무엇인가 하는것을 원리적으로 깊이 인식시키는것과 함께 그들이 조국에 대한 시와 노래도 많이 읊고 부르도록 하여야 합니다. …

전선길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병사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그처럼 심혈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령도의 손길이 있기에 우리 군인들은 애국의 열정으로 심장을 끓이며 조국의 초소를 철벽으로 지키고있는것이다.

김철혁

룡악산혁명사적지

룡악산혁명사적지는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자욱이 뜨겁게 어려있는 유서깊은 곳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사적지와 혁명사적물을 통한 교양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룡악산은 산봉우리가 마치 룡이 입을 벌리고 금시 하늘로 날아오르려는것 같이 기묘하게 생겼다고 하여 예로부터 룡악산이라고 부르고있으며 경치의 아름다움으로 하여 《평양의 금강산》이라고도 일러왔다.

대봉, 솔봉을 비롯한 20여개의 절묘한 봉우리들과 수십개의 골짜기로 이루어진 룡악산에는 수백년 자란 느티나무, 참중나무를 비롯하여 갖가지 나무들이 무성하여 봄에는 꽃향기 그윽하고 가을에는 단풍이 만산을 붉게 물들여 계절마다 절경을 이룬다.

유구한 력사를 가진 룡악산에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오랜 절간의 하나인 《법운암》을 비롯한 력사유적들과 여러개의 국가천연기념물이 있다.

이렇듯 자랑많은 룡악산은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혁명사적이 뜨겁게 새겨져있는것으로 하여 그 이름 더욱 빛나고있다.

룡악산혁명사적지에는 절세의 위인이신 어버이수령님의 어린시절의 자욱이 소중히 깃들어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배움의 천리길》을 걸어 조국에 나오시여 만경대에서 며칠간 머무르시고 외가집이 있는 칠골의 창덕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하시였다.

이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룡악산에 자주 오르시여 몸과 마음을 단련하시며 조국해방의 큰뜻을 키우시였다.

룡악산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무들과 함께 칡뿌리도 캐시면서 그들의 가슴마다에 일제를 반대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시였으며 훌륭한 애국자가 되자면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아찔한 바위에도 주저없이 오르군 하시였다.

룡악산혁명사적지에는 그날의 사연을 전하는 칡뿌리캐신곳, 랭천터, 유희터, 샘터, 바위등판, 문바위터를 비롯하여 뜻깊은 혁명사적터들이 어제날의 모습그대로 보존되여있다.

해방후 룡악산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산을 오르내리시며 등산로정도 잡아주시고 룡악산을 근로자들의 문화휴식터로 훌륭히 꾸릴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으며 그후에도 여러차례나 현지지도의 거룩한 자욱을 새기시였다.

룡악산혁명사적지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기신 뜻깊은 사적도 깃들어있다.

룡악산을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더 잘 꾸릴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드시여 여러차례나 이곳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지난해 1월에도 룡악산유원지를 현지지도하시면서 바람세찬 대봉에까지 몸소 오르시여 수도시민들을 비롯한 우리 인민들이 이제는 룡악산유원지에서 문화휴식을 마음껏 즐길수 있게 되였다고 하시며 또 하나의 인민의 훌륭한 유원지가 마련된데 대하여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룡악산혁명사적지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해방후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과 함께 룡악산에 오시여 위대한 수령님의 새 조국건설로선과 유원지건설전망을 하루빨리 실현하도록 일군들을 고무해주신 뜻깊은 혁명사적이 깃들어있는것으로 하여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있다.

룡악산혁명사적지에는 항일애국의 사상들로 일관된 10여점의 혁명적인 구호문헌들이 소중히 보관되여있다.

룡악산혁명사적지에는 《길이 전하라 불멸의 자욱이여!》라는 혁명사적비가 세워져있다.

림정호

혁명선렬들처럼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열혈투사가 되자

중앙보고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인 양형섭동지의 보고

동지들!

성스러운 우리 혁명의 갈피마다에는 자기 령도자와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운명을 함께 하며 당과 수령을 티없이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받든 충직한 전사들의 빛나는 삶의 자욱자욱이 뜨겁게 아로새겨져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따라 전당, 전군, 전민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드높이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장식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과감히 벌려나가고있는 장엄한 시기에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전사이며 우리 혁명의 원로인 김일동지의 생일 100돐을 기념하고있습니다.

이날을 맞으며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자기 운명의 전부로, 조국과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투쟁의 맨 앞자리를 믿음직하게 지켜섰던 김일동지의 생애와 투쟁업적을 경건한 마음으로 돌이켜보며 참다운 혁명가, 애국자는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게 어떻게 충실하여야 하는가를 가슴뜨겁게 새겨안게 됩니다.

김일동지는 1910년 3월 20일 함경북도 어랑군의 가난한 농민가정에서 태여났습니다.

일제놈들과 계급적원쑤들의 모진 압박과 착취에 못이겨 부모들과 함께 이국땅에 건너간 김일동지는 망국민의 설음과 고통을 뼈저리게 체험하면서 성장하였습니다.

김일동지는 이 나날에 원쑤들에 대한 적개심과 불타는 애국의 열정을 안고 혁명투쟁의 길에 나섰으나 종파사대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민생단》혐의자의 루명을 쓰고 배척을 당하는 쓰라린 고통도 겪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하지만 김일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열렬한 흠모심과 혁명적신념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지하당조직과 반일대중단체사업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반제공동전선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치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두터운 신임과 보살피심속에 련대정치위원으로 자라난 김일동지는 항일대전의 력사적승리에 이바지하였으며 해방후와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민족보위성 부상, 전선사령부 군사위원, 평안남도당 위원장 등의 중임을 지니고 혁명무력건설과 전쟁승리, 우리 당의 강화발전에 특출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김일동지는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시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내각 제1부수상, 정무원총리, 공화국 제1부주석의 책임적인 직위에서 활동하면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하였습니다.

김일동지는 이처럼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 혈전의 고비를 수없이 넘어왔으며 새 조국건설과 반미대전, 사회주의건설 등 혁명의 년대들에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위하고 받들어온 충실한 혁명가, 참된 애국자였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의 우수한 활동가였고 충직한 혁명전사인 김일동지는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을 지니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받들어모시는 산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받드는데서 김일동지는 보기 드문 투사였습니다.

김일동지가 주체25(1936)년 가을 그처럼 흠모하여마지 않던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뵙게 된것은 그의 생애에서 가장 뜻깊은 사변이였으며 주체형의 혁명가로서의 투철한 수령관을 간직하게 한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천리혜안의 비범한 예지로 조선혁명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심장으로 절감한 김일동지의 가슴속에는 김일성장군님은 곧 조국이시고 민족의 태양이시라는 절대적인 신념, 그이를 진실한 의리로 받드는 길이 혁명가의 참된 삶의 길이라는 억척같은 신념이 뿌리내렸습니다.

하기에 김일동지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건강을 지켜드리는것을 혁명가의 첫째가는 의무로 간주하였으며 그이의 신변안전을 위해서라면 한몸이 그대로 육탄방패가 되였습니다.

항일무장투쟁시기 그는 지휘관이지만 언제나 남들보다 곱절이나 크고 무거운 배낭을 지고다니였는데 그속에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흰쌀이나 좁쌀을 구하여 넣어두군 하는 식량주머니가 들어있었습니다.

우리는 굶거나 통강냉이를 먹어도 사령관동지께만은 절대로 강냉밥을 대접해드려서는 안된다, 장군님께서만 건강하시면 조선혁명은 반드시 승리를 보게 된다, 바로 이것이 간고한 행군의 나날에도 늘 배낭을 메고다닌 김일동지의 드팀없는 신조였습니다.

이런 절대적인 신념과 의리를 지니였기에 김일동지는 우리 혁명앞에 시련이 닥쳐오고 대오안에 동요분자, 변절자들이 생겨났던 1940년대초 어느날 련락임무를 가지고 자기의 소부대를 찾아온 사령부의 전령병에게 장군님의 곁을 순간도 떠나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선자리에서 되돌려보냈습니다.

조국해방전쟁시기에 김일동지가 불비쏟아지는 천리길을 헤치고 전선사령부를 찾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지켜 총을 잡고 김책동지와 함께 밤새도록 숙소주변 보초를 선 사실은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한 감동깊은 일화로 전해지고있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훌륭한 귀감으로 되고있습니다.

김일동지는 성품이 온화하였지만 위대한 수령님의 권위를 지키는데서는 사소한 에누리도 몰랐으며 서리발같이 날카로왔습니다.

1956년 4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중요한 정책적문제를 토의하는 자리에서 당과 국가의 고위직을 차지하고있던 한 종파분자가 인민생활을 제멋대로 빗대며 당정책을 시비해나섰을 때 김일동지는 추상같은 목소리로 그자의 책동을 예리하게 발가놓고 된타격을 안기였습니다.

이것은 수령의 사상과 로선에 어긋나게 행동하는자들에 대해서는 직위에 관계없이 맹호가 되여 호되게 타격하며 위대한 수령님의 권위를 확고히 보장한 김일동지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습니다.

후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의 김일동지에 대하여 회고하시면서 그는 사람들에게 주는 인상이 원만하면서도 원칙성이 강한 사람이였다, 그는 나쁜 놈들의 정체를 꿰뚫어보고 그자들에게 제때에 타격을 주어 우리 당과 당정책을 지키는데 큰 공을 세운 혁명가였다고 높이 평가하시였습니다.

오래고도 시련에 찬 투쟁속에서 혁명적수령관을 드팀없는 신념으로 간직한 김일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령도자로 높이 모시고 받드는데서 혁명의 원로로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였습니다.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을 헤쳐오는 나날에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인적천품에 탄복한 김일동지는 우리 로세대가 이제 할 일이란 장군님을 받드는데서 앞장서는것이라고 하면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장군님의 령도를 빛나게 실현하는데 전심전력하였습니다.

김일동지는 일군들에게 《백두산이 낳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혁명의 수위에 모신것은 참으로 행운중의 행운이요. 그이를 자자손손 충실하게 받들어모시는데 조선민족의 미래가 있소.》라고 곱씹어 말하군 하였습니다.

김일동지는 병고의 몸으로 온넋과 심혼을 불태우며 항일의 전우들과 함께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과 위인적풍모에 대한 부피두터운 책자를 두권이나 저술하여 세상에 내놓아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장군님의 위대성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의 성지 백두산지구에 삼지연대기념비가 웅장하게 건설되던 그때 김일동지가 건설자들앞에서 장군님의 은덕에 대하여 감동깊게 연설하여 장내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만세!》의 환호성이 폭풍같이 터져오르게 한 사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받드는 그의 충정이 얼마나 고결하고 열렬한것인가를 잘 보여주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력사적인 중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시던 날 병석에 누워 운신하기 힘든 상태였지만 지팽이를 짚고 평양역에 나가 장군님을 경건히 맞이하며 열렬한 축하를 드린 김일동지의 모습은 장군님을 받드는 마음에 언제나 가식이 없었고 로쇠를 몰랐던 참된 혁명전사의 진실한 정신세계를 뜨겁게 보여주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는 자세와 립장에서 투철한 항일혁명선렬들의 숭고한 혁명정신은 오늘 우리 나라에서 전인민적사상감정으로 승화되였으며 바로 여기에 김일동지를 비롯한 혁명선렬들이 시대와 혁명앞에 이룩한 가장 귀중한 공적이 있습니다.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 김일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절대적인것으로 받아들이고 완강한 실천력으로 끝까지 관철한 견실한 혁명가였습니다.

김일동지는 자기의 내심을 가볍게 내비치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였으나 그의 가슴속에는 언제나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직성이 간직되여있었습니다.

김일동지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조선혁명의 령도거점인 백두산밀영의 주변지역 인민들을 조직화, 혁명화할데 대한 어려운 과업을 받았을 때에도 적들의 삼엄한 경계망속에서 수없이 사선을 넘고 헤치며 능숙한 정치공작으로 빠른 시일안에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으며 수령님께서 조직지휘하신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와 구시산전투, 간삼봉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전투들에 참가하여 대오의 앞장에서 용감히 싸워 빛나는 위훈을 세웠습니다.

해방직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임무를 받고 평안북도에 파견된 김일동지는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발휘하여 반동들의 책동을 제압하고 당창건준비사업을 실속있게 다그쳤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앞으로 정규무력의 군복을 만드는데 쓸 막대한 량의 천을 마련하여 수령님께 기쁨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예견성있게 사업을 조직하고 집행해온 김일동지는 정규군의 핵심부대를 육성할데 대한 새로운 과업도 치밀하게 짜고들어 철저히 집행함으로써 인민군대를 불패의 혁명적무장력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김일동지의 무한한 헌신성과 완강한 기질은 년대를 이어 생의 말년까지 언제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면서 불치의 병고로 지팽이에 의지하여 움직이지 않으면 안되였지만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 완강한 의지로 김철과 흥남, 신포 등 전국각지의 사회주의건설장을 찾아다니며 경제사업을 정력적으로 지휘하였습니다.

당정책집행에 대한 김일동지의 결사관철의 정신과 헌신성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진행된 전력증산을 위한 전투에서 집중적으로 발현되였습니다.

그무렵 병으로 다른 직무에서 사업하고있던 김일동지는 당에서 걱정하는 문제를 푸는데 조금이라도 이바지해야 하겠다는 마음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 자기를 중요한 동력기지건설대상의 하나인 청천강화력발전소건설장에 전권대표로 파견해줄것을 제기하였습니다.

김일동지의 충정을 깊이 헤아리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의 청을 받아주시면서 현장에 가서 무리하게 일하지 말고 고문격으로 훈수나 하라고 이르시였습니다.

하지만 건설장에 나간 김일동지는 현장의 가설건물에 사무실을 정해놓고 높은 계단을 지팽이에 의지하여 오르내리면서 보이라건설을 불이 번쩍 나게 추진시켜나갔습니다.

그는 발전소에서 필요한 석탄을 해결하기 위해 탄광의 지하막장에도 들어갔으며 일군들이 조건타발을 하면 동무들이 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기 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고 한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를 읽으면서 생각되는것이 없는가, 이 시각에도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발전소완공보고를 기다리시며 밤을 지새우고계신다고 일깨워주면서 그들을 결사전에로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해 섣달그믐날 저녁까지 현장을 뜨지 않고 발전소보이라에 불을 지피고 석탄까지 넉넉히 확보해놓은 다음에야 경애하는 장군님께 완공의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집행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이 몸에 배고 굳어졌기에 김일동지는 생의 마지막시기 운신하기 힘든 상태에 있으면서도 변함없이 사무실이나 생산현장에 나가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기 위하여 모든 정력을 다 기울이였습니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관철에서 김일동지가 발휘한 견인불발의 혁명정신과 순결한 량심은 오늘 당의 웅대한 강성대국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영웅적인 투쟁을 벌리고있는 천만군민에게 커다란 고무적힘으로 되고있습니다.

김일동지는 오랜 기간 당과 국가의 높은 직급에서 활동하였지만 조직관이 투철하였으며 청렴결백하고 결곡한 성품을 지닌 진실한 혁명가였습니다.

오랜 혁명투쟁과정을 통하여 조직은 투쟁의 무기이고 생활의 거점이며 정치적생명을 보호해주고 빛내여주는 어머니품이라는것을 깊이 체득한 김일동지는 당조직을 존엄있게 대하고 그에 의거하여 사업하고 생활하는것을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생의 마지막시기에 힘겨웁게 출근하여 당세포에 찾아가 부주석으로서 경공업을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킬데 대한 당의 의도를 더 잘 받들지 못한데 대하여 총화한 다음 전화로 당중앙위원회의 한 책임일군에게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잘 모셔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남긴데서도 잘 알수 있습니다.

김일동지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한없이 숭고한 인민적풍모를 따라배우기 위하여 언제나 마음을 썼으며 당의 신임과 기대가 크고 은정이 각별할수록 자신을 전사의 자세에서 다잡으며 한생 성실하고 고지식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세도와 관료주의란 전혀 몰랐으며 그 어떤 특전, 특혜도 바라지 않았고 아래사람들이 자기를 특대하려고 하면 그것을 조금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공장이나 농촌지도사업을 나갈 때마다 꼭 집에서 점심밥을 꾸려가지고 다닌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가끔 일군들이 현지에서 따로 식사준비를 시키려고 하면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도 현지지도를 하실 때 줴기밥으로 끼니를 에우시는데 항차 내가 무엇이라고 사람들에게 페를 끼치겠는가고 꾸중하군 한 김일동지는 집을 꾸려도 검박하게 꾸리도록 하였으며 일상생활에서도 언제나 겸손하였습니다.

김일동지는 혁명의 1세로서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당과 수령을 알고 혁명을 아는 고지식하고 참된 인간으로 키우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였습니다.

그는 가정에서 자주 강냉이죽을 쑤게 하였고 마당에서 감자를 구워 자식들과 함께 들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헤쳐온 항일의 혈전만리가 얼마나 간고했는가를 깨우쳐주군 하였으며 어린 손자에게 해진 신발을 기워신는 방법도 가르쳐주며 이런것도 알아야 온전한 사람이 될수 있다고 타일러주었습니다.

참으로 김일동지는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로 하여, 당과 국가의 정치활동가로서 시대와 혁명앞에 쌓아올린 고귀한 업적과 고결한 품성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아온 주체형의 견결한 혁명가, 참다운 인간의 전형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한마음한뜻으로 충직하게 받들고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것을 삶의 전부로 여겨온것, 바로 이것이 김일동지의 한생의 총화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생전에 김일동지는 어떤 풍파가 있어도 드놀지 않는 한본새로 당과 수령을 충실하게 받들었으며 수령의 명령, 지시에 대한 집행을 상급앞에 지닌 하급의 의무로만 간주한것이 아니라 령도자에 대한 전사의 의리로 여긴 진짜배기혁명가였다고 하시면서 회고록에 그의 혁명생애와 투쟁업적을 빛나게 아로새겨주시였습니다.

김일동지의 값높은 혁명생애에는 로투사의 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빛내여주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은혜로운 손길이 뜨겁게 어려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가 병치료가 잦은것으로 하여 송구한 마음을 금할수 없어 사임의사를 표명할 때면 우리 당과 혁명에서 김일동지가 차지하고있는 위치는 달리될수 없다고, 수령님곁에서 말동무만 해주어도 더 바랄것이 없다고 하시며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였으며 암성질환으로 대수술을 할 때에는 장시간의 립회까지 서주시고 그의 건강을 극진히 보살펴주시면서 그가 중임을 잘 수행할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다 보장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백두산에서 혁명을 시작한 때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세월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해 심신을 다 바쳐 투쟁한 김일동지를 우리 혁명의 원로, 제일선배로 내세워주시며 한량없는 은정을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에게 우리 당과 국가의 지령한 활동가라는 고귀한 칭호를 안겨주시고 그의 생애와 투쟁업적을 담은 교양자료들과 그를 원형으로 하는 예술영화를 만들게 하시여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그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우도록 하시였습니다.

정녕 절세의 위인들의 숭고한 믿음과 보살피심이 있었기에 김일동지의 한생이 그토록 값높고 영광넘친 삶으로 빛날수 있었습니다.

오직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밖에는 그 누구도 모르는 투철한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 무한히 충직한 김일동지의 고결한 정신세계와 결사관철의 일본새, 혁명가적풍모는 우리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귀감으로 되며 선군혁명의 길에서 천만군민과 후대들의 기억속에 살아있을것입니다.

동지들!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조선혁명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섰으며 오늘 우리앞에는 혁명선렬들이 발휘한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과 무한한 애국적헌신성을 그대로 이어받아 사회주의강성대국을 하루빨리 건설하고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선렬들의 모범을 따라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간직하며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혁명위업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라고 지적하시였습니다.

혁명의 수뇌부는 선군조선의 강대성과 존엄의 상징이며 수령결사옹위는 우리 혁명의 가장 빛나는 전통입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일동지를 비롯한 혁명선렬들의 투철한 수령관을 본받아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결사옹위하며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는 투쟁의 길에서 장군님과 사상도 뜻도 운명도 같이하는 진정한 선군혁명동지, 열혈투사가 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전당과 온 사회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혁명의 수뇌부를 중심으로 하는 당과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을 더욱 철통같이 다져나가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는 주체혁명의 주력군이며 강성대국건설의 제일기수입니다.

인민군장병들은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위력을 백방으로 다지며 혁명적군인정신과 일당백속도로 희천발전소건설을 비롯한 대건설전투장들에서 력사에 빛날 위훈을 계속 창조해나감으로써 무진막강한 백두산혁명강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쳐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경제강국을 건설하는것은 오늘 우리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입니다.

우리는 올해공동사설에서 제시된 당의 전투적호소와 당창건 65돐에 즈음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모든 전선에서 다시금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킴으로써 뜻깊은 2010년을 인민의 행복이 꽃펴나는 번영의 해로 빛내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일군들은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의 요구대로 언제나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며 민심을 틀어쥐고 민심에 맞게 모든 사업을 전개해나가는 인민의 참된 복무자가 되여야 하며 소탈한 품성과 고상한 인정미를 지니고 대중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신망있는 지휘관이 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선군령장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백두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 강성대국의 령마루에로 폭풍치며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며 이 땅에서는 머지않아 강성대국선포의 승전고가 높이 울려퍼지게 될것입니다.

모두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두리에 굳게 뭉쳐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찬란히 꽃피우며 강성대국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아갑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사상 만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만세!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은 당과 혁명앞에 지닌 무거운 사명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대중을 영웅적투쟁과 위훈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고 능숙하게 이끌어나가는 대고조시대의 참된 지휘성원이 되여야 합니다.》

어떻게 되여 꽃다발을 받게 되였는가

대흥마그네샤크링카분공장 일군들

얼마전 대흥마그네샤크링카분공장 문화회관에서 혁신자축하모임이 시작되였을 때였다.

경소2직장 소성5작업반장 차원남동무를 비롯한 혁신자들이 무대에 오르자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이 달려나와 꽃다발을 안겨주었다.

박수소리가 터져올랐다. 그런데 이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여러명의 혁신자들이 약속이나 한듯 주석단쪽으로 달려가는것이 아닌가.

주석단앞으로 달려간 혁신자들은 자기들이 받은 꽃다발을 일군들에게 안겨주면서 이렇게 웨치는것이였다.

《동무들! 오늘의 혁신자축하무대에서 꽃다발을 먼저 받아야 할 진짜주인공들은 바로 초급당비서, 지배인, 기사장동지들입니다.》

그러자 장내에는 우렁찬 박수소리가 터져올랐다.

그것은 혁신자들만이 아니라 종업원들모두가 일군들에게 보내는 뜨거운 격찬이고 값높은 평가였다.

종업원들의 눈앞에는 지난 150일전투, 100일전투때에도 그러했지만 올해의 총돌격전에서도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치면서 앞채를 메고 달리고있는 일군들의 모습이 뜨겁게 어려왔다.

올해에도 초급당비서 김학세, 지배인 방석길, 기사장 윤덕수동무를 비롯한 공장의 일군들은 생산지휘와 조직정치사업을 전투적으로 해나갔다.

낮에는 낮대로 일하고 밤에는 또 밤대로 종업원들과 함께 로앞에서 땀을 흘리며 그들을 고무해주던 일군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제대군인들을 자주 만나 그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풀어주고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군사복무의 나날처럼 새로운 대고조의 선봉투사가 되도록 적극 떠밀어준 일군들, 언제나 작업복을 입고 더 많은 땀을 흘리며 일하면서도 종업원들을 혁신자무대에 내세워주고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는 미더운 일군들,

바로 이런 일군들이 대고조의 앞장에서 달려나가기에 공장에서는 크링카공업의 주체화를 빛나게 실현하고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 최상의 영광도 지니지 않았던가.

그러니 이런 헌신적인 일군들에 대한 종업원들의 존경과 신뢰가 그토록 강렬한것은 너무도 응당한것이였다.

우리는 꽃다발의 주인이 바뀌여진 이 하나의 생활세부를 통해서도 일군들의 기수다운 헌신적인 사업기풍, 투쟁기풍이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시키는데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감동깊이 느끼게 된다.

본사기자 송창윤

박식한 실력가

륙해운성 학습강사 최도순동무는 누구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는 열렬한 독학가, 해박한 지식을 소유한 박식가이다.

학습반성원들모두가 지식수준이 높은 일군들로 이루어진 특성에 맞게 학습지도를 잘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정치리론수준과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해 언제나 꾸준히 학습하였다.

륙해운부문의 한 단위를 책임진 일군으로서 그에게 편안히 앉아 학습할 시간이란 따로 없었다. 출퇴근시간이 그의 학습시간이였고 출장길을 오고가는 속에서도 손에서 항상 책을 놓지 않았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작들과 혁명적인 도서들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의 다방면적인 책들을 읽으면서 깊이 파고들어야 할 문제에 대하여서는 해당 전문가들을 찾아가 본질을 완전히 파악할 때까지 근기있게 학습하였다.

시간을 아껴가며 이악하게 학습하는 과정에 그는 우리 당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강성대국건설구상과 륙해운부문에 대한 정책을 더욱 깊이 체득할수 있게 되였다. 뿐만아니라 여러 분야의 폭넓은 지식을 소유하고 정세에도 밝은 박식한 실력가로 자신을 준비할수 있었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그는 학습에 참가한 성원들과 함께 출장성원들에 대한 보충강의와 학습담화도 정상적으로 실속있게 하여 학습반에 망라된 모든 일군들이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를 명백히 알고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적극 이끌어주고있다.

그의 학습강사활동은 여기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는 기관에서 진행하는 《학습강사의 날》에 자주 출연하여 안내강의도 하고 강의방법과 묘리도 하나하나 배워주면서 모든 학습강사들이 우리 당의 유능한 선전교양자로 준비해나가도록 힘있게 떠밀어주고있다.

본사기자 황철웅

전당적, 전국가적인 총공세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투철한 복무관점과 경제정책관철에서 높은 실적

동대원구역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올해공동사설의 요구대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드높이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경제사업에서 당적지도는 매우 중요하다.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의 생활력은 우리 당이 제시한 경제정책들을 최대한의 실리가 나게 집행함으로써 인민생활향상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동대원구역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은 매우 시사적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당의 경제정책집행을 철저히 장악지도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당의 경제정책을 무조건 집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구역의 생산단위들을 비롯한 여러 단위를 돌아보면 속이 여물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그 하나하나는 당정책의 운명이 자기들의 어깨우에 놓여있다는 자각을 안고 피타는 사색과 열정을 바쳐온 이곳 일군들의 혁신적인 사업기풍이 그대로 비낀 창조물들이다.

양어사업, 살림집과 공공건물들의 개건보수, 실리가 나는 공예작물특산물공장, 건재생산기지, 클로렐라배양장, 거리와 마을의 수림화, 원림화 등 알찬 열매들이 주렁진 구역의 모습,

그 비결은 구역당위원회가 행정경제일군들이 옳은 실리타산으로 구역살림살이를 깐지게 하도록 잘 이끌어준데 있다.

실리에 앞서 내세운 기준

일반적으로 경제적실리는 생산과 건설에 작용하는 원리와 법칙들을 합리적으로, 효률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 얻어진다.

구역당위원회일군들은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실무적문제로가 아니라 인민을 위하는 복무관점에 관한 문제로 보고 높은 수준에서 집행해나가고있다.

그들에게는 실리에 앞서 내세운 기준이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성에 맞게 철두철미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경제문제를 풀어나가는 원칙이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성스러운 구호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이러한 사고관점이 구역당위원회일군들에게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된 계기가 있었다.

어느해 한 대상건설이 성과적으로 끝났을 때였다.

건설을 당적으로 책임지고 나갔던 구역당위원회 해당 부서 일군들은 만족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였다.

사람들이 혀를 찰 정도로 방대하고 아름차던 건설을 손탁이 세게 내밀어 응당한 질적수준에서 빨리 끝내였으니 왜 그렇지 않겠는가.

그런데 정작 그동안의 사업정형을 총화하는 모임에서 그들이 가볍게 여겼던 문제가 크게 부각될줄이야.

그것은 건설도중에 부족되는 일정한 량의 블로크를 동의 주민들에게 호소하여 해결한 사실이였다.

평시에 다감하고 사려깊던 구역당책임비서 조성희동무는 노여움을 삭이지 못하였다.

《…그런 식으로 아무리 높은 실적을 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실적을 내는것은 인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우리 당일군들의 사업방법이 아닙니다.》

그날 책임일군은 일군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말을 하나로 쥐여짜면 투철한 인민적관점을 떠나서 경제적실리 그자체를 론할수도 없다는 것이였다.

책임일군의 말은 인민생활향상과 관련한 대상건설이라고 하여 그쯤이야 하고 생각했던 일군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였다.

이 일로 하여 구역당위원회 일군들은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우선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원칙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되였으며 인민을 위해 참답게 복무하는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였다.

그 《눈》은 사소한것도 놓치지 않았다. 겨울철에 집집에서 내다버린 석탄재의 가루들이 오물장에서 날려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수 있는 문제를 해결한 사실을 놓고보아도 그렇다.

구역당위원회일군들은 구역인민위원회일군들과 그 해결을 위한 협의를 심화하는 과정에 석탄재에 의한 블로크생산기지를 새로 꾸리기로 하였다.

지금껏 구역안의 오물장들에 겨울동안 쌓이는 석탄재를 처리하는데 많은 륜전기재와 연유가 들었었다. 그러던것이 석탄재를 기본재료로 하는 현대적인 블로크생산기지를 새로 꾸림으로써 그것을 절약하게 되였다. 그러면서도 해마다 쨍쨍 생산되는 석탄재에 의한 블로크로 주민들의 살림집들과 공예작물특산물공장, 연료사업소저탄장, 클로렐라배양장 등 마음먹은 대상건설들을 힘껏 내밀수 있었다.

투철한 인민적관점을 첫째가는 기준으로 삼고 경제사업에서 실리를 철저히 보장하도록 당적지도를 알심있게 해나가니 쓸모없다고 내버리던 석탄재가 오히려 《보배》로 전환되게 되였던것이다.

앞을 내다보는 일본새

경제사업은 수학과 같다. 물감장사처럼 사업을 깐지게 하지 않고서는 커다란 실리를 보장할수 없다.

구역당위원회일군들은 행정경제일군들이 당의 경제정책관철을 위한 사업에서 종자론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이끌어나감으로써 보다 큰 실리를 얻게 하고있다.

구역에서 수림화, 원림화사업이 일정에 올랐을 때였다.

일부 행정경제일군들은 수림화, 원림화와 관련한 전망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부족되는 나무모들을 다른 곳에 가서 구입해올 타산을 하고있었다.

사방 아스팔트와 아빠트들뿐이고 나무를 심을만 한 빈땅도 많지 않으며 유능한 원림기술자도 별로 없는 구역의 현 조건에서는 어쩔수 없으며 따라서 다른 곳에서 나무모를 구입해오는것이 상책이라는것이 그들의 주장이였다.

구역당책임일군은 그것은 당의 결정과 지시를 진실로 받드는 립장과 자세가 아니라고 보았다. 또 그런 땜때는 식으로는 구역의 전반적인 살림살이를 전망적으로 설계하고 향상시켜나갈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로부터 몇달이 지난 어느날이였다. 구역당책임일군은 해당 부문의 일군들을 구역당위원회청사 뒤쪽에 있는 빈땅으로 불렀다. 거기에는 그동안 책임일군이 원림사업소일군들과 남모르는 《경쟁》을 벌리면서 애지중지 싹을 틔우고 정성껏 키워온 어린 수삼나무모들이 있었다.

그날 일군들과 함께 그 나무모들을 심으면서 책임일군은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동안 《씨름질》을 해보니 구역에 이쯤한 빈땅은 얼마든지 있고 양묘작업반의 리동무를 비롯한 재능있는 원림기술자들도 있다, 오늘을 위한 오늘이 아니라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것, 이것을 사업의 종자로 틀어쥐고나가면 꼭 성공할수 있을것이다.

그때 일군들에게는 책임일군의 그 말이 어느 정도 랑만적으로 들리였었다. 하지만 책임일군이 내다본 그 래일은 빨리 다가왔다.

책임일군은 구역의 전반적인 당사업을 보는 바쁜 속에서도 원림서적들을 직심스럽게 파고들었으며 원림사업소에서 수삼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계단식으로 잘 자래우도록 하였다.

도로옆이나 아빠트밑을 비롯한 나무모밭의 적지로 정해진 구역안의 빈땅들에서 키돋움하면서 자란 나무모들이 거리와 마을들에 나가게 되였다. 그에 따라 거리에서 볼품이 없던 나무들은 점차 자취를 감추고 수삼나무, 은행나무, 단풍나무, 버드나무를 많이 심은 새 거리들이 생겨나 도시의 풍치를 더 한층 아름답게 돋구게 되였다.

이렇게 되여 구역은 수림화, 원림화사업에서 앞선 단위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서게 되였다.

구역에서는 시안의 원림부문 일군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보여주기사업이 여러차례에 걸쳐 진행되였으며 양묘작업반 반장 리영호동무는 경험토론까지 하였다.

나무모가 부족하여 애를 태우며 다른 곳에 가서 구입해올 타산을 하던 때가 엊그제같은데 지금은 수많은 단위에서 나무모를 달라고 다투어 찾아오는 희한한 광경이 펼쳐지고있다.

지난해에 구역에서는 청년거리와 새살림거리에 있는 수십동의 살림집들을 개건하고 봉사망들도 새 세기 맛이 나게 새로 꾸리였다.

구역에서는 이 공사에 드는 수백㎥에 달하는 목재들을 가로수들을 새로 옮겨심고 거기에서 나온 예비로 해결하였던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공예작물특산물공장에서 어느 한 경제식물을 통한 생산품들로 리윤을 끊임없이 확대하면서 구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는것도 다 구역당위원회일군들이 경제사업을 적극 떠밀어준 결과인것이다.

인민들이 덕을 입을 때까지

몇해전 어느날이였다.

구역의 양어장에서 일하는 한 일군을 만난 구역당책임일군은 자그마한 비닐봉지를 내보이면서 이것을 메기의 먹이로 리용할수 있겠는가고 물어보는것이였다.

비닐봉지를 받아 그안에 든것을 살펴보고서야 일군은 가공하면 얼마든지 영양가높은 메기의 먹이로 리용할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 비닐봉지안에는 가정에서 흔히 볼수 있는 말린 부식물찌끼가 들어있었다.

책임일군은 구역안의 주민세대들에서 이만한 량은 얼마든지 나올수 있을것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메기의 먹이문제를 보다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방도가 생겼다고 기뻐하는것이였다.

여기에는 사연이 있었다.

얼마전 현지에 내려가 로동자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메기생산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방도를 찾던 책임일군은 결정적으로 먹이문제가 걸렸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구역에서 자체의 힘으로 양어장을 건설하고 메기를 기르기 시작하여 몇해가 지나 그 마리수가 점차 늘어나자 먹이문제가 따라서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지렁이서식장도 만들고 양어장주변의 빈땅들에 먹이작물들을 심어 리용하였으나 먹이는 여전히 부족하였다. 일부 일군들은 도시한복판에서 양어를 그만큼 하는것도 다행으로 여기고있었다.

(당의 경제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과시되자면 그 정도에 머무를것이 아니라 인민들이 실지 큰 덕을 보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는 그때부터 몇마리의 새끼메기를 집에 가져다 길러보면서 하루에 나오는 부식물찌끼를 말리우면 얼마만 한 량이 되는가도 알아보았던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구역안의 주민들을 발동하면 먹이로 리용할수 있는 량이 얼마나 되겠는가를 깐깐히 타산해본 다음에야 양어장의 일군을 만나 그 가능성여부를 확인하였던것이다.

구역당위원회에서는 해당 부서 일군들을 동, 인민반들에 파견하여 양어장의 구체적인 실태를 알려주면서 선동사업을 실효있게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들이 이 사업에 주인답게 떨쳐나서게 하였다. 그리고 이 사업에서 발휘되는 모범들을 적극 일반화하면서 부식물찌끼를 모아 초미분쇄하여 메기의 먹이로 리용하게 하는 정연한 체계를 세워놓았다. 그렇게 되니 메기생산은 이전과 비할수 없이 부쩍 뛰여올라 양어장에서 생산된 메기를 탁아소, 유치원들에 공급하는것은 물론 메기전문식당을 통하여 주민들에게도 널리 봉사하게 되였다.

동대원구역당위원회 일군들처럼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관점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실리가 나게 해나가도록 당적지도를 실속있게 짜고들 때 인민생활향상에서는 보다 큰 성과가 이룩될것이다.

특파기자 최재남
본사기자 리정수

10만세대 살림집건설자의 영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평양에 인민들을 위한 현대적인 살림집과 공공건물들, 공원과 유원지들을 더 많이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얼마전이였다.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건설에 참가한 건설자들을 찾아 건설장에 들린 우리는 한 오랜 건설자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되였다.

《저기 거리들을 좀 보십시오.

날로 아름답게 현대적으로 변모되는 평양의 거리를 따라 걷느라면 수도건설자의 영예를 더욱 가슴벅차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그의 말을 들으며 수도의 거리풍경에서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수도의 곳곳에 숲을 이룬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은 뜨거운 추억으로 우리의 심금을 틀어잡았다.

년대와 년대를 이어가며 얼마나 많은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이 땅에 일떠섰던가.

김일성경기장과 **개선문**, **주체사상탑**, **인민대학습당**과 **만수대예술극장**, **창광원**, **빙상관**, **평양산원**,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락원거리, **창광거리**, **문수거리**, **청춘거리**, **광복거리**…

그 웅장화려한 모습을 새기면 새길수록 우리는 흘러온 창조와 건설의 력사, 위대한 조국의 력사를 다시금 가슴벅차게 새겨안게 된다.

벌써 수십년세월이 흘렀다. 천리마의 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리며 《평양속도》를 창조해가던 그날의 건설자들의 머리우에는 흰서리가 내리였다. 하지만 위훈과 변혁을 창조해가는 투쟁기풍, 투쟁방식은 오늘도 변함없이 굳세게 이어지고있다.

만수대거리의 웅장화려한 모습이, 수도 평양에 펼쳐지고있는 10만세대 살림집건설의 장쾌한 현실이 이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건설장은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고있었다.

곳곳에 나붙은 구호판들과 속보판들, 기운차게 동음을 울리는 혼합기들과 륜전기재들…

붉은 기폭들이 불길처럼 휘날리는 건설장에서는 후더운 가슴들을 열어제끼고 살림집기초공사를 다그치는 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의 열띤 모습이 벅차게 안겨왔다.

우리는 여기서 만수대거리가 완공되였을 때 그곳에서 낯을 익혔던 한 돌격대원과 다시 만나게 되였다.

건설을 끝마치면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니 어떻게 된 일인가고 묻는 우리에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냥 갈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 건설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떳떳이 자랑하겠습니다. 나는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건설자라고말입니다.》

나는 10만세대 살림집건설자다!

이것은 그 한사람만의 심정이 아니였다.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불타는 열의를 안고 수도건설에 뜨거운 땀방울을 바쳐가고있는 군인건설자들, 선군시대 《평양속도》의 창조자로 보람찬 생의 자욱을 새겨갈 열망안고 한초한초를 불같은 투쟁의 자욱으로 빛내가는 모든 건설자들의 심장속에서 울려나오는 웨침이 우리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다.

우리는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건설자다!

우리는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다!

바로 이것이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건설자들의 자랑이고 영예이다.

본사기자 윤지혜

청진경공업대학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대학들에서는 교원들속에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 학생들을 능력있는 민족간부로 키워내는것과 함께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들을 내놓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공업공장들의 현대화에 기여

청진경공업대학에서는 나라의 경공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들을 이룩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기여하고있다.

인민생활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과학연구성과들을 이룩하자.

모든 교원, 연구사들이 이런 의지와 결심밑에 혁명적대고조로 들끓는 경공업부문 공장, 기업소들로 달려나가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해결에 사색과 탐구를 바쳐가고있다.

그 앞장에는 대학일군들이 서있다.

부학장 김응주동무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속에 일떠선 수성천종합식료공장 생산공정의 현대화와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완성할 결심밑에 교원들인 장금철, 박성진동무들과 함께 현지로 내려갔다. 이들은 전반적인 생산공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데 기초하여 새로운 방법에 의한 소주생산공정을 꾸리고 빵생산공정과 감자가공공정의 콤퓨터화를 실현하는데 달라붙었다. 기술력량도 부족하였고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마련하는 사업도 아름찼다.

하지만 대학일군들과 교원들은 주저하지 않았다. 하나를 창조해도 우리 식으로 남보다 월등하게 할 의지를 안고 때로는 수십리가 넘는 새벽길을 걷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의 기술적문제해결을 위해 며칠밤을 지새우기도 하면서 우리 식의 새로운 생산체계를 세워나갔다. 도과학기술통보소를 비롯하여 해당 부문 일군들이 이들의 과학연구사업을 적극 도와나섰다.

성과는 컸다. 교원집단은 두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우리 식으로 생산공정들의 전반적설계를 완성하였으며 새로운 방법으로 여러 생산공정들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완성해나갔다. 이 과정에 교원 장금철동무는 식료공업발전에 크게 한몫할수 있는 학위론문을 완성하여 좋은 평가를 받게 되였다.

이들만이 아니다. 도내 피복공장들에 나간 교원 안용철동무를 비롯한 방직피복학강좌 교원집단은 실이 끊기지 않게 하는데 필요한 원료연구에서 좋은 성과를 이룩하여 많은 원료를 절약하면서도 생산능률을 더욱 높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대학당조직에서는 모든 교원들과 학생들이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자신들이 지닌 숭고한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무슨 일을 한가지 하여도 주인다운 립장에서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실천하도록 사상교양사업을 적극 안받침하고있다.

교무행정부서일군들은 대학과학심의위원회와 과학발표회 등 여러가지 사업들을 의의있게 조직하여 모든 교원들이 무엇을 하나 하여도 첨단을 돌파하며 인민생활향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수 있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연구종자로 잡고 성과적으로 풀어나가게 하고있다.

진철

인민의 사랑받는 봉사자들

사리원시상업관리소 종업원들

아침마다 사리원시 주민지구들에서는 종소리가 정답게 울리고있다. 시상업관리소의 이동봉사자들이 울리는 종소리이다. 아침시간에 이들이 진행하는 부식물이동봉사는 주민들 특히 가정주부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은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지만 국가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해주는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곳 상업관리소 소장 박효숙동무는 인민의 복무자로서의 본분을 다해갈 열의를 안고 아침마다 부식물이동봉사활동을 진행할것을 결심하고 종업원들을 불러일으켰다. 사회주의상업의 본성적요구를 더 잘 살려나가려는 그의 결심을 당조직에서는 지지해주었다.

시당위원회 책임일군은 인민생활향상과 관련된 이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면서 이동밀차며 봉사자들이 입을 비옷에 이르기까지 제기되는 문제들을 적극 풀어주었다.

상업관리소종업원들은 식료가공기지들을 늘이고 원료기지에서 나온 생산물과 산나물 등을 가지고 원자재도 확보하였다. 이와 함께 주민지구들에서 이동봉사를 진행하기 위한 봉사계획도 세웠다.

어버이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숭고한 사랑속에 마련된 이동봉사길을 걸으며 이들이 매일 아침 종소리를 울릴 때마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귀에 익은 그 소리를 들으며 수령님의 어버이사랑을 오늘도 그대로 이어주시는 우리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날마다 종소리를 울리며 마을과 집집을 찾는 봉사자들의 수고를 두고 지금 시안의 많은 주민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으며 시상업관리소 식료가공반 음식이 집에서 만든것보다 더 맛있다고 하면서 료리《비밀》을 알려달라고도 한다. 자주 현지에 나가 부식물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알아보고 가공부식물의 질을 부단히 높여나가며 그 종류도 늘여나가고있는 한영희동무며 각종 음식을 만들어내는 식료가공반성원들의 정성속에 날마다 아침이면 인민들의 웃음꽃이 피여난다.

사리원시상업관리소 봉사자들을 두고 시안의 인민들은 《우리 봉사자》들이라고 정답게 부르며 사랑하고있다.

특파기자

편집사직장에서—
열렬히 축하!
공동사설과업관철에서 앞장서고있는 혁신자들을
—평양방직공장 신충혁 찍음

조로 두 나라사이의 경제적 및 문화적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61돐에 즈음하여 로씨야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연회 마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경제적 및 문화적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61돐에 즈음하여 로씨야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17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로그비노브 로씨야외무성 순회대사와 지역발전성, 경제발전성, 문화성, 비상사태성, 과학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로씨야협회, 《로씨야철도》주식회사 기타 문화예술, 출판보도부문 인사들이 초대되였다.

김영재 로씨야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는 두 나라사이의 경제적 및 문화적협조에 관한 협정체결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언급하고 조로관계는 여러 분야에서 좋게 발전하고있다고 하면서 올해에도 두 나라 수뇌분들이 합의한 공동문건들의 정신과 국가간 조약에 기초하여 그리고 두 나라사이의 경제적 및 문화적협조에 관한 협정에 따라 조로친선협조관계가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서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그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를 높이 받들고 우리 인민이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로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는데 대해 소개하고 우리 공화국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로씨야외무성 순회대사는 61년전에 체결된 두 나라사이의 경제적 및 문화적협조에 관한 협정은 로조관계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건이라고 하면서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로조친선협조관계를 보다 확대발전시킬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히 갖추어져있다고 말하였다.

최근 두 나라사이에는 고위급대표단들의 호상방문과 일련의 경제협조계획들의 실현 등 쌍무관계가 활력있게 발전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공동기념일들을 맞이하는 올해에 보다 실질적인 성과가 이룩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그는 존경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친선적인 조선인민이 강성대국건설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룩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한다고 강조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드미뜨리 아나똘리예비치 메드베제브대통령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로친선협조관계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로씨야 나호드까와 하바롭스크주재 우리 나라 대표부에서도 12일과 17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고풍군 방성협동농장 김철호, 홍금실부부에게는 자식들을 조국보위초소에 세운 긍지가 있다

이들부부는 언제나 자식들에게 가정의 행복과 조국의 운명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총대로 받드는 길에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장군님의 군대가 되여 조국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하군 하였다.

초소에서 군사복무를 잘하고있다는 자식들의 소식이 담긴 편지를 받을 때마다 이들부부는 인민군후방가족이 된 긍지를 가슴뿌듯이 느끼며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답게 농사를 잘 지을 결의를 다지군 한다.

자식들을 조국보위초소에 세운 후방가족의 긍지는 이들부부로 하여금 삶의 매 순간을 애국의 열정속에 살게 하고있다.

로농통신원 안상희

영웅메달에 비낀 삶

2.8비날론련합기업소 제관직장 용접공 박영진동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누가 보건말건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에서 자기의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생을 빛나게 사는 사람입니다.》

지난 3월초 어느날 박영진동무의 집창가에서는 밤깊도록 불빛이 꺼질줄 몰랐다. 로력영웅이 된 아버지의 가슴에 안겨 좋아라 웅석부리던 자식도 이미 굳잠에 든지 오랬건만 박영진동무는 좀처럼 잠들수 없었다.

조국이 안겨준 영웅증서와 메달을 눈물속에 보고 또 보는 그의 생각은 깊었다.

로력영웅과 용접공!

엄청난 간격이 있어보이던 이 말이 하나로 합쳐졌으니 꿈만 같아 그의 가슴은 세차게 들먹이였다.

그의 귀전에는 군인건설자로서 비날론공장 (당시) 의 터전을 다졌고 제대후에도 고향이 아니라 병사시절의 소중한 추억이 깃들고 구슬땀이 배인 이곳 비날론지구에 제대배낭을 풀어놓고 한생 용접공으로 일해온 아버지가 하던 말이 쟁쟁히 들려왔다.

그가 로동생활을 시작하던 날 아버지는 자기의 뒤를 이어 용접공이 된 아들에게 말하였었다.

《이름난 사람이 되기도 힘든것이지만 조국앞에 한생을 성실하게 사는것도 그만 못지 않게 힘든 일이다.》

아버지의 그 말을 언제나 새기며 로동생활을 이어온 박영진동무였다.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하였다. 직업에 대한 애착이 그로 하여금 언제나 혁신자로 이름떨치게 하였고 누구보다 높은 용접기능을 소유하게 하였다.

비날론생산공정을 현대적으로 건설하는 공사가 시작된 후 지난 2년동안에도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결사관철하는 길에서 언제나 앞장에 섰다.

눈보라치는 날에도, 깊은 밤에도 기업소구내의 합성탑, 정류탑조립작업장들과 배관조립장마다에서는 용접집게를 억세게 틀어잡고 련일 혁신을 일으키는 그의 열정넘친 모습이 보이였다.

낮이면 해빛과 함께, 밤이면 별빛과 함께 열정을 쏟듯 그는 불보라를 뿌리였다. 아득한 탑우에서 쉬임없이 뿌려지는 용접불꽃은 그대로 일터를 사랑하는 그의 뜨거운 땀방울이였다. 그 땀이 창조의 강철기둥을 자래우고 그 기둥에 떠받들려 기업소가 하루가 다르게 젊어진다고 생각할 때면 그의 가슴속에서는 용접공이 된 영예와 긍지가 샘솟았다.

현대적으로 일떠선 비날론생산공정의 그 어느 구조물치고 그의 손이 가닿지 않고 그의 땀방울이 스미지 않은것이란 거의나 없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 말은 어렵고 힘든 용접과제가 제기될 때마다 그가 늘 하는 말이다.

어떤 복잡하고 어려운 용접과제를 맡겨도 사소한 거품이나 불용착을 허용하지 않고 만점짜리로 해놓군 하는 깐진 일본새, 중요한 용접과제를 도맡아하면서도 찬사앞에서는 얼굴을 붉히는 성실하고 순박한 사람이 박영진동무였다. 그래서 기업소의 일군들치고 제관작업, 용접작업이 제기될 때마다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는 사람이 없다.

보람찬 로동의 나날 그는 수많은 창조물을 남기였지만 언제 한번 자기가 하는 일을 그 어떤 특별한 위훈으로 생각해본적이 없다. 평범한 용접공으로서, 공민으로서 조국을 위해 응당할 일을 한다고만 생각하였다.

그러나 어머니조국은 이름없는 한 로동자가 흘린 땀과 남모르는 수고도 다 헤아려주며 영웅의 값높은 칭호까지 안겨준것이다.

바친것보다 받아안은것이 너무도 크기에 그날 밤도 박영진동무는 잠들지 못했다. 그의 귀전에는 더 높은 위훈의 령마루에로 부르는 조국의 부름이 들려왔다. 그래서 그는 다시 일터로 달려갔다. 용접불꽃은 온밤 질줄 몰랐다.

평범한 용접공의 영웅메달은 말한다. 조국앞에 무한히 성실하는것, 그것이 곧 참된 삶이고 영예이라고.

본사기자 정성일

금강산, 개성지구관광재개를 가로막는 범죄적책동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명 승 지 종 합 개 발 지 도 국 상 보

얼마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대변인담화를 통하여 3월부터 개성지구관광, 4월부터 금강산관광의 문을 열어놓을것이며 남조선당국이 관광재개를 계속 가로막는 경우 부득불 결단성있는 조치를 취하게 될것이라는것을 엄숙히 선포하였다.

이것은 금강산과 개성지구관광재개를 위한 북남실무접촉이 남조선당국에 의해 결렬된 조건에서 관광을 불순한 정치적목적에 악용하려는자들에 대한 단호한 선언이다.

돌이켜보면 6.15와 더불어 내외의 커다란 관심속에 10년간이나 진행되여온 금강산관광과 개성지구관광이 보수패당이 집권한 이래 2년가까이 중단되고있는것은 실로 개탄할 일이다.

우리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온 겨레에게 기쁨과 통일의 희망을 안겨준 금강산과 개성지구관광이 어떻게 되여 중단되였으며 왜 재개되지 못하고있는가를 내외에 밝혀 보수패당의 범죄적책동을 단죄하기 위해 이 상보를 발표한다.

《금강산관광객사건》의 진상

2008년 7월 금강산지구에서는 통행이 금지된 우리측 군사통제구역안에 불법침입한 정체불명의 인원이 경계근무중인 우리 인민군초병의 단속과 경고를 무시하고 달아나다가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알려진데 의하면 사망자는 박왕자라는 중년의 남조선녀자관광객이라고 한다.

당시 온 남조선땅을 휩쓴 각계층 인민들의 대중적인 초불시위와 탄핵투쟁으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져있던 괴뢰보수패당은 때를 만난듯이 마치도 우리가 《무고한 관광객》을 고의적으로 사살한것처럼 야단법석하면서 금강산관광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반공화국모략소동에 미쳐날뛰였다.

그것은 저들에게 쏠린 사회적이목을 딴데로 돌려 위기를 모면하며 반공화국대결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벌리기 위한 비렬한 술책외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금강산관광객사건》은 괴뢰패당이 떠드는것처럼 결코 《무고한 관광객》이 제정된 관광구역안에서 정상적인 관광을 하는 과정에 일어난 불상사가 아니다.

다 아는바와 같이 금강산관광구역은 세계적으로 가장 첨예한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 위치하고있다. 따라서 관광로정이 따로 정해지고 관광객들이 거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광구역 경계표식과 철울타리를 비롯한 각종 차단물들이 설치되여있다.

사건이 일어난 현장을 보아도 경계표식이 있는 울타리와 물으로부터 바다까지 뻗어나간 모래언덕 그리고 12m폭의 물도랑 등 이중삼중으로 관광구역이 철저히 구분, 격리되여있고 군사통제구역으로 함부로 들어갈수 없게 되여있다.

금강산관광지구에는 관광로정과 시간, 관광객들이 지켜야 할 안전규정과 출입 및 체류에 관한 질서들이 정확히 규정되여있으며 관광객들은 그것을 사전에 철저히 교육받게 되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남조선관광객이 그것도 녀자의 몸으로 혼자서 어떻게 되여 아직 통행시간도 되지 않은 어둑시그레한 이른새벽에 경계울타리를 에돌고 모래언덕을 넘어 신발까지 적시면서 물도랑을 건너 우리측 군사통제구역에 깊숙이 침입하였겠는가 하는것이다. 이것은 아직까지도 의문의 여지를 남기고있다.

군사통제구역으로 들어온 불법침입자에 대한 우리 초병의 행동은 철두철미 군사규정과 규범에 따른 정당한것이였다.

초소를 지켜 정상적인 경계근무를 서고있던 우리 인민군초병은 날이 채 밝지 않은 꼭두새벽 망망대해와 잇닿은 바다가를 따라 차단물을 넘어 군사통제구역에 침입한 정체모를 시커먼 물체를 발견한 순간 규정대로 정지구령을 크게 치며 멈춰설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침입자는 단속에 응할 대신 오던 길로 되돌아 황급히 달아나기 시작하였다. 우리 초병은 그를 추격하며 거듭 정지구령을 쳤으나 침입자는 계속 도망쳤다. 초병이 예고사격을 하였지만 멈춰서지 않았으므로 결국 조준사격으로 침입자를 징벌하였다.

우리측은 사망한 침입자의 정체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그의 몸에는 신원을 확증할만 한 아무러한 증명서나 표식도 없었으며 남조선관광객들이 의무적으로 지참하게 되여있는 관광증같은것도 없었다.

우리측은 여러곳에 알아보던 끝에 남측의 금강산관광사업자인 현지의 현대아산측에 련락하여 인원확인을 해줄것을 요구하였다. 현대아산측 관계자들은 현장에 와보고 사망자를 검사까지 한 다음 정체모를 침입자가 남조선관광객이라는것을 확인하였다.

사건현장에서 우리측 관계자들은 남측 관계자들에게 해수욕장 경계울타리를 넘어 군사통제구역으로 침입한 관광객의 이동경로를 현장에 찍힌 발자국을 따라가며 보여주면서 사건발생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었으며 현장과 사망자에 대한 촬영도 허용해주었다.

우리는 사건경위가 어떠하든 사망자가 남조선관광객이라고 하므로 인도주의와 동포애적인 견지에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과 조선인민군 금강산지구 군부대 대변인특별담화를 통하여 유감표시도 하고 진상공개도 하였다.

《금강산관광객사건》의 진상은 이러하다.

한마디로 《금강산관광객사건》은 관광지구 규정과 질서를 심히 위반하고 제정된 관광로정을 벗어나 우리 군사통제구역을 침범하고도 단속과 경고에 응하지 않은데로부터 발생한 불상사이다.

남조선관광객이 우리 초병의 단속에 순순히 응하기만 하였더라도 그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리라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지난 시기에도 남조선관광객들이 관광구역을 벗어나 우리측 군사통제구역에 접근하거나 침입한적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그들은 우리 초병의 단속에 복종하였기때문에 불상사를 면할수 있었다.

도대체 자기의 군사통제구역에 들어온 불법침입자를 가만 내버려두는 군대가 어디에 있으며 남조선군사통제구역안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면 남측이 방임해두었겠는가 하는것이다.

불법침입자를 단속하고 불복하면 단호히 징벌하는것은 우리의 응당한 자위권의 행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패당이 그 무슨 《파잉대응》이니, 《무방비상태의 관광객에게 총격을 가했다.》니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있는것은 도적개 코를 세우는 격의 황당무계하고도 파렴치한 궤변이다.

《금강산관광객사건》의 책임을 따진다면 어디까지나 본인의 불찰이고 관광객들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남조선당국에 책임이 있다.

고 의 적 인 생 트 집

얼마전에 있은 금강산과 개성지구관광재개를 위한 북남실무접촉에서 남측은 《금강산관광객사건》의 《진상규명》과 《신변안전보장》, 《재발방지》조치를 그 무슨 《3대조건》으로 내걸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관광을 재개할수 없다고 생떼를 썼다.

뿐만아니라 괴뢰통일부 장관 현인택을 비롯한 당국관계자들이 나서서 그러한 《정부립장은 변함이 없다.》느니 뭐니 하고 떠들어대고있다.

이것은 관광사업을 파탄시키기 위한 고의적인 생트집에 불과하다.

《관광객사건》의 진상규명문제로 말하면 우리가 사건발생 즉시 사건전모를 다 밝히고 남측 관계자들과 공동으로 현장조사까지 한것만큼 사실 이제 더 해명해줄것이란 없다.

사건당사자는 사망하였고 사건현장은 군사통제구역으로서 누구나 함부로 출입할수 없는데다가 사건이후 시일이 경과하고 해일등의 영향으로 지형지물도 크게 달라짐으로써 현장조사의 의미도 없게 되였다는것은 누구에게나 자명한것이다.

신변안전과 재발방지조치에 대해 말한다 해도 이미 북남사이에 충분히 협의해결되고 합의된 문제이며 별도로도 남측에 여러차례 걸쳐 담보해준바 있다.

1998년 10월 아태와 현대사이에 체결한 《금강산관광사업에 관한 부속합의서》에는 《관광객 및 모든 인원에 대한 신변안전과 편의 및 무사귀환보장》을 규정하고있으며 2004년 2월에 있은 제13차 북남상급회담에서 채택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는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출입 및 체류목적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보장한다.》고 밝혀져있다.

그리고 2000년 5월 우리는 인민보안상의 명의로 남조선관광객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각서까지 특별히 발급하여 남측에 넘겨주었다.

특히 지난해 8월 관광사업의 당사자인 현대그룹 회장의 평양방문때 우리는 우리측 지역에 들어오는 남조선관광객들의 신변안전과 재발방지문제를 최고의 수준에서 담보해주었으며 그에 대해 아태와 현대사이의 공동보도문을 통하여 내외에 공식 천명하였다.

공동보도문에는 우리 최고수뇌부의 특별조치에 따라 관광에 필요한 모든 편의와 안전이 철저히 보장될것이라는것이 명백히 밝혀져있다.

우리의 성의있는 조치는 내외의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으며 남조선인민들과 온 겨레는 관광이 다시 시작되게 되였다는 희망과 기쁨에 넘쳐 그것을 적극 환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를 비롯한 괴뢰보수패당은 《민간업자와의 합의는 인정할수 없다.》고 심술을 부리면서 무엄하게도 우리의 특별조치를 전면부정해나섰는가 하면 우리가 현대를 통해 남조선당국에 특별조치내용을 통보해주었을 때에는 《당국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비틀었으며 남측 당국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담보해주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정식 회담을 통해 담보해달라고 하면서 외면하였다.

우리의 주동적노력에 의해 정작 당국실무접촉문제가 제기되자 더이상 꼬리를 사리기 어렵게 된 괴뢰패당은 그 누구의 대표단권능을 주제넘게 물고넘어지면서 접촉날자를 수일이나 지체시켰을뿐아니라 마지못해 회담탁에 끌려나와서도 《3대조건》을 턱에 걸고 극히 오만무례하고 불성실하게 놀아대다 못해 접촉자체를 뒤집어엎는 망동을 부렸다.

지난 2월 8일에 있은 금강산과 개성지구관광재개를 위한 북남실무접촉의 전과정은 괴뢰패당이 관광재개에 꼬물만치도 관심이 없으며 오직 파탄시킬 흉심밖에 없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접촉에서 우리측은 북남화해와 협력의 상징인 금강산관광과 개성지구관광사업을 위하여 지금까지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여온데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가 《관광객사건》의 진상을 구체적으로 밝혔고 재발방지 및 신변안전도 최고의 수준에서 담보해준 조건에서 관광을 재개하지 못할 리유가 없다고 하면서 관광재개와 관련한 합의서초안을 제시하였다.

합의서초안 2항은 《2009년 8월 17일 북측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남측의 현대그룹사이에 합의발표한 공동보도문에 따라 관광에 필요한 모든 편의와 관광객들의 신변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하였다.》로 되여있다.

그러나 애초 파탄을 목적으로 아무 준비도 없이 빈손으로 나온 남측은 우리측이 제시한 합의서초안에 대해서는 듣는둥마는둥 하면서 눈감고 아웅하는 격으로 《3대조건》만을 앵무새처럼 계속 외워댔으며 나중에는 더이상 협의가 필요없다고 하면서 다음번접촉날자도 정하지 않은채 달아나는 무례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더우기 접촉을 시작하자마자 미리 꾸민 각본에 따라 북남대화력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묵념》광대놀음까지 벌린것은 괴뢰패당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론이나 모면하기 위해 접촉에 마지못해 응해나왔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괴뢰패당이 요즘 관광재개와 관련하여 입만 벌리면 《신변안전》을 계속 떠들면서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내들고있지만 우리측 지역에는 지금도 매일과 같이 많은 남측 인원들이 드나들고 개성공업지구에만도 적지 않은 남측 인원들이 상주하고있어도 그들의 신상에 아무 문제도 제기되는것이 없다.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사람중심의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고 정치적으로 고도로 안정된 우리 공화국에서처럼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신변안전이 철저히 담보되는 곳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을것이다.

우리 공화국에는 다른 나라들에서 흔히 보게 되는 마피아도 없고 개인테로도 없으며 강도도 없다. 공화국지역에 들어와 규정과 질서만 바로 지킨다면 누구든지 관광을 마음껏 즐길수 있다. 하기에 자랑높은 세계적인 명승지들을 가지고있으며 신변안전도 철저히 담보되는 공화국에 대한 관광수요는 날로 높아가고있다.

제반 사실은 괴뢰패당이 《신변안전》이요 뭐요 하는것은 순전히 관광사업을 파탄시키기 위한 생트집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관광재개를 가로막는 속심은 무엇인가

《통일부》를 비롯한 괴뢰보수패당이 그 무슨 《3대조건》에 걸어 금강산과 개성지구관광재개를 가로막고있는것은 결코 남조선관광객들의 신변안전이 진짜로 걱정되여서도 아니고 《관광객사건》의 재발을 우려해서도 아니다.

원래 미국을 할애비처럼 섬기면서 사대매국과 파쑈독재를 생리로 하고있는 괴뢰정권에 있어서 인민들의 안전이나 생명같은것은 안중에 있어본적이 없다.

집권하자마자 미국산 미친소고기를 식용으로 대량 끌어들여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분노를 폭발시킨것도 현 괴뢰보수패당이며 엄동설한에 룡산의 가난한 주민들의 집을 빼앗고 한지에 내몰고는 그에 항거하여 롱성하는 철거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여 불에 타죽게 한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장본인도 다름아닌 현 《정권》이다.

그러한자들이 북남협상탁에 나와 저들의 사망한 관광객 1명을 코에 걸고 《묵념》하는 광대극을 벌리고 그 무슨 《신변안전》이니 뭐니 하며 놀아대는 꼴이야말로 역겨운 추태가 아닐수 없다.

지금 괴뢰보수패당이 《북에 관광가면 총에 맞아죽는다.》, 《그 누구도 북에 관광을 보내려 하지 않는다.》는 못된 소리를 내돌리고있지만 그런 《우려》를 실지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동족을 적대시하는 한줌도 못되는 반통일보수패당과 그 족속들일지는 몰라도 절대다수의 민심은 금강산관광재개를 한결같이 고대하고있다.

지난해 아태와 현대사이에 관광재개와 관련한 공동보도문이 발표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현대아산측에 관광예약을 하고 여론조사에서 대다수가 금강산관광재개를 지지한 사실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금강산관광중단의 여파로 큰 타격을 받은 남조선강원도 고성군의 업소들과 주민들이 절망에 빠져 관광재개를 손꼽아 기다리고있으며 남조선《국회》 의원들까지 금강산관광중단으로 인한 경제적피해액이 수천억원에 달한다고 하면서 관광을 시급히 재개할것을 주장하고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괴뢰패당이 여론을 오도하면서까지 금강산과 개성지구관광재개를 그토록 악랄하게 가로막고있는 속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미국에 추종하여 반공화국핵대결소동과 《제재》책동에 더욱 악랄하게 매달리려는데 있다.

지금 괴뢰패당은 장장 수십년동안 외부세력의 온갖 봉쇄와 압살책동속에서도 날로 승승장구하고있는 공화국의 기상과 불패의 위력에 전률하고있다.

그들은 우리의 정당한 위업과 단호한 본때앞에 미국이 주도하는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핵소동과 《제재》책동이 맥을 못 추고 물거품이 되고있는 사태에 당황망조하면서 《북의 핵문제가 해소되기 전에는 관광을 재개해서는 안된다.》느니, 《3대조건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핵문제와 결부시켜 관광문제를 다루어나가야 한다.》느니 하면서 최후발악하고있다.

괴뢰패당은 특히 그 무슨 《돈줄》이니, 《퍼주기》니 하면서 관광재개문제를 그와 련결시켜 망발하고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숭고한 관광사업을 몇푼의 돈따위로 모독하고 저울질하는것도 치사하고 저렬하지만 관광대가를 우리의 강성대국건설과 자위적국방력건설과 결부시켜 어쩌고저쩌고 하는것이야말로 현 《정권》패당이 얼마나 어리석고 아둔하며 무지한자들인가 하는것을 실증해줄따름이다. 아무리 돈밖에 모르는 《실용정권》이라고 하여도 우리를 상대하려면 공화국의 막강한 정치, 군사, 경제적잠재력과 최첨단의 경지에 오른 우리의 현실부터 제대로 알고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관광대가가 《미싸일과 핵무기개발》에 리용될수 있다고 하는것은 반공화국대결광증과 피해망상증에 걸린자들의 단말마적인 발작소동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보여준다.

괴뢰보수패당이 금강산관광과 개성지구관광재개를 가로막고있는것은 또한 북남공동선언을 유린, 말살하고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가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에 역행하여 분렬과 대결의 장벽을 더 높이 쌓자는데 그 추악한 속심이 있다.

력대적으로 파쑈도당은 북남화해협력사업의 《옥동자》로, 6.15의 상징으로 불리우는 금강산과 개성지구관광을 달가와하지 않았으며 그것을 파탄시켜보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여왔다.

1989년 1월 우리와 현대그룹사이에 금강산관광과 관련한 의정서가 처음으로 체결되였을 때 당시의 군부독재《정권》은 그것을 빛도 볼 사이없이 무참히 짓밟아버렸으며 남조선에서 《정권》이 교체되여 1998년 11월 금강산관광길이 열리게 되자 권력의 자리에서 밀려난 《한나라당》패들은 미국상전과 결탁하여 《관광대가의 군사비전용》이니 뭐니 시비하며 그에 도전해나섰다.

2002년 10월에는 《한나라당》이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한 기회에 《남북협력기금》사용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금강산관광에 대한 자금지원을 사실상 중지시켰는가 하면 2003년에는 《대북송금특검》소동을 일으켜 북남협력과 금강산관광의 길을 개척한 기업가를 죽음에로까지 몰아넣었다.

괴뢰보수패당은 2008년 권력을 다시 틀어쥐기 바쁘게 북남공동선언들을 백지화하고 대결정책을 선포하는것과 함께 《관광객사건》을 구실로 일거에 금강산관광을 중지시키고 개성지구관광도 막아버렸을뿐아니라 국제무대에까지 《관광객사건》을 들고나가 반공화국소동을 미친듯이 벌렸다.

이 모든 사실은 금강산과 개성지구관광이 재개되지 못하고있는것이 그 무슨 《관광객사건》이나 《신변안전문제》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괴뢰보수패당의 극악한 반공화국대결정책때문이라는것을 보여준다.

남조선당국의 반통일대결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이제 남측과 백번 마주앉았댔자 관광재개문제가 해결될수 없다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관광재개에 대한 부정은 북남관계에 대한 부정이고 북남공동선언에 대한 부정이며 화해와 단합, 통일에 대한 부정이다.

괴뢰보수패당이 관광재개를 가로막는것으로 그 무엇을 얻을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처럼 미련하고 바보같은 망상은 없을것이다.

지금 이 땅에 또다시 관광계절인 봄빛이 짙어가면서 민족의 명승지들을 보고싶어 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소망은 날로 더해지고있으며 온 겨레는 금강산과 개성지구관광이 하루빨리 재개되기를 바라고있다.

이제 관광길이 열리는가 마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

괴뢰보수패당이 반공화국대결책동에 매달리면서 끝까지 관광재개를 가로막을 경우 우리는 아태대변인담화에서 천명한대로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데로 나갈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하여야 한다.

금강산, 개성지구관광재개를 가로막는 괴뢰패당의 범죄적책동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을것이다.

주체99(2010)년 3월 19일
평 양

환멸을 자아내는 잡소리

요즘 남조선집권계층속에서 핵문제와 관련한 희떠운 소리들이 나오고있다. 《통일부》 장관 현인택의 언행을 놓고 일맥상통한 그 말마디들에 대한 시비를 따져보자.

이자는 며칠전 서울에서 비공개로 열린 한 강연에서 조선반도의 평화가 불안하다고 어성을 높이면서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것이라느니, 저들이 《주역으로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느니 하고 횡설수설하였다. 이보다 앞서서는 핵문제가 《비확산문제를 넘어 통일과 직결된 문제》이며 따라서 통일을 원한다면 국제사회의 비핵화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는 식으로 우리에게 훈시하려들었다.

주객이 전도되고 현실과 사고가 유리된 그야말로 잡소리이다.

이자가 조선반도의 평화가 불안한 원인문제를 입에 올렸는데 사실상 괴뢰들은 그럴 체면조차 없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엊그제까지만 하여도 남조선괴뢰들은 미국과 함께 우리를 반대하는 핵선제공격을 내용으로 한 대규모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하였다. 지구를 열두번도 더 초토화할수 있는 숱한 핵무기로 무장한 미제침략군의 전방전개와 공격작전연습, 여기에 도입된 작전계획 등만 보아도 이 전쟁연습이 북침핵불장난이라는것은 명백하다. 위협이라면 이런것이 실지 위협이다.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바로 무력으로 우리를 침략하기 위한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대조선핵전쟁책동에 의해 산생된것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조선반도의 평화가 불안한것도 그때문이다.

외세의 핵으로 동족을 멸살시키려고 지랄발광하는자들이 반공화국핵전쟁연습을 벌리면서까지 정세불안의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려 하는것은 적반하장격이다. 그것은 승냥이를 믿고 기승을 부리는 여우의 몰골을 방불케 한다.

우리는 이번 반공화국핵전쟁불장난을 지켜보면서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대조선침략기도에 대처하여 핵억제력을 다져온것이 얼마나 현명한 선택이였는가에 대하여, 적들의 침략정책이 달라지지 않는 한 조선반도의 평화가 보장될수 없으며 따라서 자위적인 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야 한다는데 대하여 실감하였다.

현인택역도는 저들의 북침전쟁연습을 정당화하고 국제사회에 지배하는 조선반도핵문제해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흐려놓을 심산으로 그런 궤변을 늘어놓은것 같은데 현실에 배치되고 론리적타당성이 없는 말은 그자신의 무지만을 드러내게 된다는것을 새겨둘 필요가 있다.

이자가 통일에 대한 그릇된 관점에서 국제사회의 비핵화노력에 대한 《동참》이니 뭐니 하며 우리에게 훈시하려 한것도 리치에 닿지 않는 황당한 수작이다.

그래도 장관이라면 조선반도비핵화의 본질과 순리가 무엇인가 하는것쯤은 알고 덤벼야 한다.

국제사회가 공인하는것처럼 우리는 조선반도를 비핵화하자는 립장이다. 하되 본질과 리치에 맞게 매듭을 풀어나가자는것이다. 제 공정을 뒤바꾸어서는 토목공사를 바로할수 없는것처럼 핵문제도 그 근원부터 제거하면서 순차대로 나가야 해결될수 있다. 이렇게 보면 과연 누가 어디에 동참해야 하는가.

현인택을 비롯한 보수패당이 핵문제와 관련하여 하는 언행은 우리를 모함하고 고립압살해보려는 기도로부터 출발한 악담이며 도발이다.

동족과 손을 잡고 민족의 번영을 위해 노력하지는 못할망정 무작정 엇서려드는 보수집권세력의 집요한 반역행위에 우리는 환멸을 금할수 없다.

이런자들이 무엇을 《주도》하겠다고 너스레를 떠는것이야말로 앙천대소할 일이다.

괴뢰들이 자기 몸값도 모르고 헤덤비는 한 그 무엇을 주도하기는 고사하고 조선반도문제와 관련한 그 어떤 대화에도 끼여들 자리가 있을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흉심을 품고 하는 행동은 대가를 치르기마련이다.

최 문 일

일본당국의 부당한 차별정책을 단죄

재일조선학교에 대한 일본당국의 부당한 차별정책을 규탄하는 어머니들의 긴급집회가 16일 조선학교어머니회 중앙련락회의 주최로 일본 도꾜에서 진행되였다.

집회에는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일군들과 일본각지의 조선학교어머니회 성원들, 일본인사들이 참가하였다.

강추련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였다.

그는 녀성동맹과 어머니들은 터무니없는 구실로 조선학교를 차별하며 동포자녀들을 희생자로 만드는 일본정부의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전체 동포녀성들이 후대들의 배움터와 권리를 끝까지 지키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집회에서는 김금녀 조선학교어머니회 중앙련락회 대표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일본당국의 이번 처사는 일본사회에서 반공화국적대감정을 부추기고 성스러운 민족교육사업을 저들의 부당한 목적실현에 리용하려는 정치적탄압이라고 단죄하였다.

그들은 일본정부가 오는 4월부터 실시하는 고등학교들에 대한 지원대상에 조선학교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집회에서 련대발언한 일본인사들은 조선학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것은 인권침해이며 민족차별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일본정부가 응당 조선학생들에게 배움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조선학교를 지키기 위한 재일조선인들의 투쟁에 호응하여 함께 떨쳐나설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집회에서는 일본수상에게 보내는 요청문이 채택되였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도꾜의 주요역들에서 선전활동을 벌렸다.

북남관계개선에 나설것을 요구

남조선의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학술본부 상임대표가 얼마전 보수집권세력이 반공화국대결정책을 철회하고 북남관계개선에 나설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당국이 집권초기부터 오만하고 황당한 반통일정책을 들고나와 2년동안 시간만 허비하였다고 혹평하였다.

현 《정권》하에서 남북학자들의 상봉이 철저하게 차단되여 학술교류를 못하고있다고 하면서 지난해에도 《시기가 좋지 않다.》는 말도 안되는 리유로 단체가 제출한 북과의 실무접촉을 불허하였다고 그는 비난하였다.

그는 당국의 처사는 6.15공동선언발표이후 10년간 이루어온 통일의 분위기와 성과를 말살하는 반통일적행위라고 단죄하였다.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가장 선차적과제는 당국이 남북공동선언들의 정신을 존중하고 남북사이의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또한 통일운동의 가장 큰 적인 《보안법》을 페지하는것이라고 그는 언명하였다.

그는 올해에 남북학자들의 상봉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모든 민간통일운동단체들이 일치단결하여 민족의 념원인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할것을 호소하였다.

미국의 반공화국제재책동을 규탄

남조선의 불교평화련대가 얼마전 《미국은 북에 대한 경제제재를 즉각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남조선의 각 언론사들에 보냈다.

성명은 미국이 북에 경제제재를 집요하게 가하고있는것은 반인권적, 반평화적만행이라고 단죄하였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민중들은 미국이 경제제재를 당장 철회하고 북침전쟁연습을 중지하며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나설것을 요구하고있다고 성명은 밝혔다.

성명은 미국이 아무리 경제봉쇄를 강행한다 해도 결코 북의 경제발전을 막을수 없다고 하면서 그것은 북이 철저히 자립, 자주의 민족경제, 사회주의경제를 지켜왔기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이 유엔이라는 시녀까지 동원하여 북을 고립, 압박하는것은 극악무도한 범죄라고 성명은 규탄하였다.

미국은 경제발전에 모든 힘을 다하고있는 북을 더이상 방해하지 말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 1874호》를 당장 페기해야 한다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성명은 미국이 적대국가에 취하는 고질적인 침략, 살인행위와 북에 대한 경제제재를 즉시 철회할것을 평화와 통일을 념원하는 불교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보수세력의 대결망동을 비난

남조선신문 《세계일보》가 14일 보수세력의 반공화국대결망동을 규탄하는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12일 한 보수단체가 그 무슨 《친북, 반국가행위자》들의 명단이라는것을 발표하고 이들이 《북의 주체사상, 선군사상, 련방제통일로선 등을 지지, 선전》했다느니, 《법질서를 부정하고 변란을 선동》했다느니 뭐니 하고 걸고든데 대해 비난하였다.

이 명단에는 현직 《국회》 의원들과 통일운동가들을 비롯한 각계의 진보적인 인사 100명이 포함되여있다고 사설은 밝혔다.

사설은 사회각계가 보수분자들의 망동을 시대착오적인 《색갈론》으로 단죄하며 강력히 반발해나서고있다고 하면서 당사자들중 일부는 법적대응의사를 밝히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사설은 보수단체가 앞으로 2차, 3차 명단을 계속 발표하겠다고 떠들어댄데 대해 언급하고 이러한 망동을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호전광들 합동공중보급수송훈련 감행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괴뢰호전광들이 15일과 16일 경기도 포천과 남조선강원도 양구일대에서 2010년 전반기 합동공중보급수송훈련을 감행하였다.

괴뢰공군 제5전술공수비행단과 륙군 제1군수지원사령부의 합동으로 실시된 이번 군사연습은 조선반도《유사시》 전쟁수행에 필요한 병력과 장비, 군수물자를 신속히 투입하기 위한데 중점을 두고 광란적으로 벌어졌다.

호전광들은 《C-130H》와 《CN-235》수송기들을 비롯한 방대한 전쟁장비들을 동원하여 공중투하 및 공수착륙훈련에 광분하였다.

본사기자

숭고한 인덕을 지니신 만민의 은인

예로부터 태양을 위대함과 은혜로움의 상징으로 일컬어오고있다. 그것은 태양이 어둠을 밝히고 만물에 생을 주며 거대한 태양계를 움직이는 빛과 열, 인력을 가지고있기때문일것이다.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은 태양의 빛과 같은 슬기와 예지, 태양의 열과 같은 뜨거운 사랑, 태양의 인력과 같은 천품을 지니신 위대한 어버이이시다.

오늘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21세기의 태양으로, 하늘이 낸 절세의 위인으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거기에는 이 세상 그 어느 위인도 따르지 못하는 숭고한 인덕과 풍모를 천품으로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와 신뢰의 정이 담겨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조국과 인민에게 끝없이 충실하며 인민의 지도자로서의 풍모와 자질을 훌륭히 갖추고있습니다.》

인덕의 숭고함은 한없이 뜨거운 인간애와 도량, 포옹력에 있다. 인덕의 높이이자 도량의 폭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하늘의 높이에도, 바다의 깊이에도 비기지 못할 넓은 도량과 포옹력을 지니신 불세출의 대성인이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언어와 풍습, 피부색, 국적이 달라도 그가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고 자주와 진보를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한량없는 사랑과 은정을 베푸신다.

중국의 장울화동지의 일가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도 그중의 하나이다.

장울화렬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에 가장 잊지 못해하시던 외국의 벗들중의 한사람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랜 세월을 두고 그를 잊지 못해하시였고 그가 영생의 삶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장울화렬사기념비까지 세워주시였다.

먼저 간 혁명전우들을 길이 추억하고 내세우며 그들의 후대들을 잘 돌봐주는것을 필생의 의무로 여기신 위대한 수령님의 그처럼 고결한 동지애와 의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하여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그대로 이어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뜻밖의 서거로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가 커다란 슬픔과 비애에 잠겨있던 주체83(1994)년 7월 11일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장울화동지의 일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만나뵙게 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장울화동지의 맏손자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며 후에 꼭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로부터 며칠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한 책임일군을 그들에게 보내시여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실때처럼 자신께서 돌봐주겠으니 자주 우리 나라에 오라고 당부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을 잃은 우리 인민의 모든 아픔을 합친것보다 더 큰 아픔을 겪으시면서도 외국의 혁명렬사의 자손들을 생각하시여 그처럼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과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로씨야의 평범한 손님사이에 수놓아진 감동적인 이야기도 만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또 하나의 인간애의 전설이다.

어느해 5월초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접견을 받고 돌아간 로씨야의 손님이 귀국한지 석달도 못되는 7월에 우리 나라를 또다시 찾아왔다.

여기에는 그럴만 한 사연이 있었다. 5월에 우리 나라에 왔을 때 경애하는 장군님의 접견을 받고 로씨야에 돌아간 그는 절세위인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열렬한 경모심을 담아 장군님께 유명한 그루지야꼬냐크를 선물로 드리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진정할수가 없었다. 그는 다음번에 자기가 오면 며칠간 짬을 내여 함께 쉬자고 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이 한시도 잊혀지지 않았다. 그이의 휴식을 보장해드리기 위해서라도 평양에 다시 가야 한다고 생각한 그는 7월 중순에 부인과 함께 우리 나라를 다시 찾아오게 되였던것이다.

그의 우리 나라 방문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못내 기뻐하시면서 숙소와 참관조직, 휴식문제에 이르기까지 체류일정을 친히 짜주시였으며 부인에게는 가극관람도 시키고 종합검진도 받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그리고 해수욕도 하면서 즐겁게 지내도록 특별비행기까지 띄워주시였다.

손님이 체류기간 생일을 맞게 된다는것을 아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에게 생일상을 차려주도록 해주시고 은정넘친 선물도 보내주시였다. 생일상까지 받아안은 그는 너무도 황송하여 지금 꿈을 꾸는것만 같다고,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가고 하면서 감격을 금치 못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체류일정도 끝나가고있었다. 바로 그러한 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일군에게 전번에 그가 다시 오면 함께 쉬자고 약속했댔는데 현지시찰일정이 맞물려있어서 짬을 내지 못했다, 이번에 나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면 그가 얼마나 서운해하겠는가, 다른 일들을 뒤로 미루고서라도 래일 오전에 손님을 만나려고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음날 예정대로 손님을 반갑게 만나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먼저 그간 불편한 점은 없었는가, 부인이 가극관람이랑 제대로 하였는가를 알아보시고 이번에 오면 함께 쉬자고 하였지만 이미 물려놓은 일정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미안하다고, 오늘 만나지 못하면 더는 기회가 없을것 같아서 이렇게 전투적으로 오찬을 마련하였다고 하시면서 잔에 술을 부어주시였다.

손님으로서는 그야말로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일이였다. 그는 너무도 감격하여 잔을 들념을 못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길데없이 다심하고 뜨거운 인정미를 온몸으로 받아안는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어리였다.

한 나라 령도자가 평범한 외국손님을 위해 그처럼 귀중한 시간을 내여 크나큰 은정을 베푸신 전설같은 이야기, 그것은 한번 사귄 벗을 언제나 귀중히 여기시고 변함없이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인덕의 세계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위대한 사랑의 서사시인것이다.

다음날 로씨야로 떠나면서 손님은 우리 일군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뜨거운 인정미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움직이시는 불세출의 대성인이십니다.》

이것은 인간사랑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매혹된 그의 진심의 고백이고 심장의 웨침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대외활동일지에는 국제적우의와 고결한 사랑을 베풀어주신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여있다. 그이께서는 여러 나라 각계인사들을 접견하실 때마다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옹력으로 그들모두를 뜨거운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시였다. 전 유고슬라비아대통령이였던 찌또가 《김정일동지는 사랑의 창조자이시다.》라고 한것도,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서기장이였던 고빈드 나라인 스리바스타바가 《만민이 우러르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받은 이 행복, 이 영광을 어디에 비기겠는가.》고 한것도, 빠나마의 무역화물선 《와이트 펠라》호 선장 구보다 히사아끼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고매한 덕성을 지니신 만민의 은인이시다.》라고 한것도 그 폭과 깊이를 헤아릴수 없는 우리 장군님의 대해같은 인덕과 포옹력에 대한 례찬인것이다.

우주의 태양이 영원하고 그 인력이 불변하듯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국제적우의와 한없는 사랑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들은 세월과 더불어 끝없이 생겨나 길이 전해질것이다.

본사기자 김종손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의 반향

선군시대의 창조물, 인민의 문화전당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은정속에 훌륭히 개건된 대동문영화관을 돌아본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속에서 감탄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중국영화대표단 단장 조해성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대동문영화관이 내용과 형식을 완벽하게 갖춘 문화전당으로 개건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대동문영화관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없을 만년대계의 창조물로 개건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이 영화관을 근로자들이 즐겨찾는 문화정서생활장소로 되게 하시려고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조선인민은 자기들에게 또 하나의 문화적재부를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라오스영화대표단 단장 웡찟 펌마짝은 높은 수준에서 개건된 대동문영화관을 돌아보고 이렇게 강조하였다.

이 영화관은 전문영화관으로서의 면모를 잘 갖추고있다.

조형예술적으로 독특한 건축양상을 띤 영화관은 음향학적, 시각적요구를 충분히 보장해줄수 있게 되여있다.

훌륭하게 꾸려진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감상하고있다.

리뜨바영화대표단 단장 안드류스 마몬또바스는 감상록에 다음과 같이 썼다.

경애하는 김정일각하의 깊은 관심속에 대동문영화관은 현대적미감과 건축학적요구에 맞게 잘 꾸려졌다.

참관을 통하여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시는 김정일각하의 위인적풍모를 다시금 깊이 느끼게 되였다.

총련 조선통신사 사장 양인원은 감상록에 대동문영화관은 종전의 건물외부형식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내부를 완전히 일신시킨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이다, 인민의 복리를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희한한 영화관을 마련해주시였다고 썼다.

총련일군대표단 단장 박종일을 비롯한 해외동포들은 한결같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었기에 이처럼 훌륭한 인민의 문화전당이 일떠설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조선의 인민적시책—무상치료, 무료교육

국제사회계가 격찬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면서도 누구나 누릴수 없는 고마운 내 조국의 인민적시책.

치료받을 걱정, 배울 걱정없이 무상치료, 무료교육의 혜택속에 사는 복받은 우리 인민에 대한 국제사회계의 부러움은 이 땅에 태를 묻고 사는 천만사람들의 가슴속에 공화국공민의 긍지와 영예감을 더욱 깊이 새겨주고있다.

인디아 김일성동지로작연구청년소조 서기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강력한 군력으로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는 무적의 성새이며 그들에게 건전하고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을 담보해주는 행복의 요람이라고 하면서 조선에서는 인민이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인민을 위한 참된 정치가 현실로 꽃펴나고있다고 격찬하였다.

에스빠냐에 본부를 둔 조선과의 친선협회 위원장은 인터네트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조선사람들은 온갖 생활조건을 국가로부터 보장받으며 평등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다.

또한 무상치료, 무료교육의 혜택을 받고있을뿐아니라 세금이라는 말조차 모르고있다.

이런 나라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쿠웨이트신문 《쿠웨이트 타임스》는 조선의 인민적시책은 모든 사람들에게 고르롭게 미치는 시책이고 조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시종일관하게 실시되는 시책이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확대발전시키는 시책이라고 소개하였다.

이딸리아평화와 사회주의운동 총비서는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있는 조선에서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인민적시책으로 하여 사람들이 누구나 다 로동과 배움의 권리,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고 격찬하였다.

메히꼬에서 진행된 학령전교육에 관한 제8차 국제토론회에서 토론회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여러차례 조선을 방문하여 당과 국가가 학생들과 어린이들에게 얼마나 크나큰 혜택을 돌리고있는가를 직접 목격하면서 가장 인민적인 사회주의교육제도에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깊은 관심과 뜨거운 사랑속에 조선의 어린이들은 훌륭한 조건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건전하며 재능있는 인재들로 자라나고있다고 하면서 조선식사회주의의 참모습과 교육제도의 현실을 알려면 조선에 꼭 가보아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남아프리카공산당 음푸말랑가주위원회 위원장은 조선이 온갖 사회적혜택이 인민들에게 골고루 차례지는 인류의 리상사회로 된것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주석께서 한평생 가장 인민적인 정치를 펼치심으로써 이룩된 빛나는 결실이라고 하면서 조선은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계속되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다른 나라들에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무상치료, 무료교육과 같은 사회적시책들을 변함없이 실시하고있다고 말하였다.

벌가리아 쏘피아에 있는 《김일성도서실》 책임자는 조선인민이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면서 무상치료, 무료교육의 혜택속에 행복하게 살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김정일동지께서 주체사상을 발전풍부화하시고 선군정치로 사회주의를 수호해나가시기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에스빠냐에 본부를 둔 조선과의 친선협회 노르웨이지부대표는 인터네트에 올린 글에서 다음과 같이 찬양하였다.

인류의 꿈과 리상은 동방의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현실로 되였다.

조선은 가장 선진적인 사회제도가 세워진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다.

조선에서는 교육, 보건에 대한 국가의 인민적시책으로 하여 전반적 11년제무료의무교육제와 무상치료제가 실시되고있다.

21세기 인민들의 유일한 락원, 리상사회는 김일성주석의 이민위천의 사상이 구현된 조선식사회주의이다.

하기에 조선인민은 자기들에게 보람찬 삶과 행복을 안겨주신 김일성주석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사회주의의 수호자이신 김정일각하를 위하여, 자기 제도를 위하여 힘과 열정, 재능, 지어 목숨까지도 다 바치고있다.

이것이 조선식사회주의의 우월성과 불패성의 원천이다.

본사기자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빈궁청산투쟁에서 성과

베네수엘라에서 빈궁청산투쟁을 힘있게 벌린 결과 지난해 빈궁률이 1996년의 70%로부터 23.8%로 감소되였다.

정부는 가까운 기간에 빈궁률을 20%로 줄일것을 계획하고있다.

최근 이 나라 대통령 우고 챠베스 프리아스는 이에 대해 밝히면서 나라에 가난한 사람이 한명도 없게 하는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강조하였다.

천연고무 생산

말레이시아에서 올해 1월에 천연고무생산량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8.4% 더 늘어났다.

한편 고무수출은 40.6% 증대되였다.

비행장확장공사

케니아에서 수도에 있는 국제비행장확장공사를 시작하게 된다.

공사계획에 따라 비행기착륙장, 주차장, 비행장으로 통하는 도로들을 확장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공사가 완공되면 비행장의 수송능력이 훨씬 늘어나게 된다.

중국에서 차잎수확

중국 미국의 내정간섭행위 규탄

중국외교부 대변인이 12일 기자회견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행위를 규탄배격하였다.

최근 미국회 하원 의장이 티베트문제에 대한 그 무슨 《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은 사실을 외곡한것으로서 이에 대해 중국은 견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티베트에서 민주개혁이 실시된 후 지난 수십년간 사회경제발전과 인권, 종교, 문화보호 등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고 하면서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있는 사실이라고 언급하였다.

중국은 미국회 의원들이 사실을 존중하고 편견을 버리며 티베트문제를 가지고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행위를 중지할것을 요구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미국의 《인권보고서》를 배격

수단외무성 대변인이 14일 성명을 발표하여 자기 나라의 인권상황을 비난한 미국의 《인권보고서》를 배격하였다.

성명은 그 보고서가 날조와 일방주의, 불신으로 가득차있으며 객관성이 부족하고 현실적인 정치정세를 반영하지 않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민간인학살만행과 인권침해행위에는 전혀 낯을 돌리지 않고있다고 단죄하고 성명은 날조된 보고서로 그 누구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겠다는것은 오산이라고 지적하였다. 성명은 미국의 《인권보고서》를 인권보장을 위한 평가기준으로 간주할 나라는 하나도 없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아랍령토에 대한 강점종식을 주장

수리아대통령 바샤르 알 아싸드가 7일 한 외교석상에서 아랍령토에 대한 이스라엘의 강점을 끝장낼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중동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이 이룩되자면 이스라엘이 모든 강점지역에서 군대를 철수시키고 아랍나라들에 령토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또한 아랍나라들의 현실을 외면하는 서방의 그릇된 정책이 지역에서 테로와 극단주의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계속 녹아나는 미군

이라크의 디얄라주에서 13일 항쟁세력의 군사적공격으로 미군 1명이 즉사하고 2명이 부상당하였다.

이날 북부지역에서도 미군 1명이 황천객이 되였다 한다.

반이스라엘시위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에서 14일 이스라엘의 봉쇄책동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수백명의 팔레스티나인들과 국제평화활동가들이 참가하였다.

시위참가자들은 《가자지대에 대한 부당한 봉쇄를 중지하라》, 《가자지대 주민들에게 자유를》 등의 글들이 씌여진 기발들을 들고 반이스라엘구호를 웨치면서 북부에 위치한 이스라엘군의 에레즈초소앞까지 행진해갔다.

그들은 가자지대에 대한 봉쇄를 걷어치우도록 이스라엘에 압력을 가할것을 국제공동체에 호소하였다.

이에 앞서 12일 요르단강서안지역과 가자지대에서 이스라엘의 《안전장벽》건설과 유태인《정착촌》확장책동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수백명의 팔레스티나인들이 참가하였다.

시위참가자들은 거리를 따라 행진하면서 반이스라엘구호들을 웨치고 이스라엘과 미국기발들을 불태워버렸다.

그들은 이스라엘당국이 《안전장벽》건설을 계속 강행하고 《정착촌》확장책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있는데 대해 규탄하면서 강점자들과 그 어떤 협상도 진행할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에짚트에서 15일 청년들의 반이스라엘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각지에서 수천명의 청년들이 참가하였다.

시위참가자들은 최근 이스라엘이 요르단강서안지역에 있는 2개의 팔레스티나유적을 저들의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한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였다.

그들은 전체 인민이 이스라엘의 강탈행위를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며 아랍나라들이 이스라엘당국의 무분별한 행위에 대처한 조치를 취할것을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파국을 불러오는 군비증강

일반적으로 국가예산에서 수입이 줄어들고 적자가 늘어나면 지출에 영향을 미친다. 이때에는 해당 나라가 국가예산에서 각종 지출항목을 없애거나 지출규모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출입균형을 맞추어나가는것이 보편적이다. 특히 군사비는 국가예산에서 균형을 맞추는 조절항목의 하나로 되고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 전례없는 예산적자에 시달리면서도 군사적비용으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나라가 있다. 미국이다.

얼마전 미재무성이 발표한데 의하면 지난해 9월 30일에 끝난 미국의 2009회계년도 예산적자가 1조 4 200억US$에 달하였다. 2009회계년도의 정부수익금은 2008회계년도에 비해 16.6%나 적었지만 지출액은 18.2%나 늘어났다고 한다. 말하자면 지난 회계년도에 국가예산에서 수입이 대폭 줄어들고 지출이 늘어난것이다. 미재무성은 옳바른 대책이 취해지지 않으면 예산적자가 앞으로 10년동안에 도합 9조 1000억US$에 이르게 될것이라고 야단하였다.

미국이 국가예산에서 적자가 나기 시작한것은 1980년대 레간행정부시기부터이다. 당시 미국대통령 레간은 침략과 군비확장정책에 골몰하면서 예산적자가 나는것을 그리 큰 문제로 보지 않았다. 레간집권시기이후에도 미당국은 예산적자증대문제에 대해 등한시하였다.

미당국은 2008년에 자국에서 일어난 파국적인 금융위기의 타격을 받고서야 갈수록 늘어나는 엄청난 예산적자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느끼기 시작하였다.

미회계감사원 이전 원장은 미국사람들이 지금처럼 생활하다가는 세계의 주요예산적자국의 국민으로 전락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런가하면 미국의 두뇌집단이라고 하는 브루킹스연구소의 한 상급연구원은 정부가 재정적인 통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련방예산적자는 걷잡을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오늘 미국은 천문학적액수에 달하는 예산적자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미국이 어느 시각에 무너질지 알수 없다. 이전 미재무장관도 미국의 심각한 국가예산실태를 두고 우려를 표시하면서 적자문제를 해결하는데는 2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수입을 늘이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출을 줄이는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미행정부는 이와 상반되는 방향으로 나가고있다.

지난 2월초 미행정부는 2011회계년도(2010년 10월 1일—2011년 9월 30일) 국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에 의하면 2011회계년도 국가예산지출액은 현 회계년도보다 훨씬 많다. 거기에 포함되여있는 군사예산도 현 회계년도보다 크게 늘어났다.

여기에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자국의 새 군사전략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금, 신형전투기, 차량들과 탄도미싸일을 탑재한 다음세대 잠수함을 비롯한 신형함선들 등 군사장비를 현대화하는데 드는 거액의 자금지출건이 들어있다.

방대한 예산적자국이 지출을 계속 늘이면 종당에는 망하지 않을수 없다. 여론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미국의 예산적자, 채무에 대해 거론하면서 그것으로 하여 조만간에 미국이 망할수 있다고 평하는것은 우연하지 않다.

로씨야신문 《쁘라우다》는 《군사적야망이 미국을 망하게 하다》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2009년 하반기에 전문가들은 세계가 경제위기로부터 벗어날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락관하였었다.

그러나 2010년에 들어와 영향력있는 외국경제출판물들에서 론의되고있는 주요문제의 하나는 바로 미국이 파멸될수 있다는것이다. 이렇게 광범하게 론의되고있는 불안스러운 가설이 어디에 기초하고있는것인가? 아프가니스탄주둔 미군을 1000명 더 늘이는데도 많은 자금이 든다. 문제는 미국과 그의 〈반테로〉동맹국들이 아프가니스탄에 아무리 많은 전쟁비용을 쏟아부어도 탈리반을 소탕하기 힘들것이라는데 있다. 또한 경제전문가들속에서 론의가 많은 미국의 군사예산의 지속적인 증가는 불피코 미국경제를 파산의 함정에 몰아넣을것이라는것이다.》

영국신문 《파이낸셜 타임스》의 한 론평원은 자기의 글에서 미행정부가 예산적자증대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계획을 가지고있지 않다고 하면서 그것은 세계적으로 미국의 군사예산이 가장 많은데 기인된다, 결국 미국은 계속 빚을 걸머지게 되며 그렇게 되면 조만간에 미국이 파멸될 조짐이 나타나게 될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전 미국대통령 레간의 특별보좌관이며 케이토연구소 상급연구원인 밴도우는 《우리가 허용할수 없는 전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2010회계년도 미국의 군비지출문제에 대해 비난하면서 미국의 계속되는 이라크강점과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확대가 미국의 파멸을 촉진시키는 주요촉매제이다라고 말하였다.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도 미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새 회계년도예산안을 념두에 두고 《그 예산안을 보느라면 미국의 많은 주택소유자들처럼 결코 빚더미에서 헤여날수 없는 국가의 모습이 안겨온다.》고 하면서 이것은 자국이 수입보다 채무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 파국적사태에 처할수도 있다는것을 시사해준다고 평하였다.

그런가하면 세계 3대신용등급평가회사의 하나인 《무디스》는 미국의 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예산수입은 줄어들 전망이므로 미국의 신용등급이 사상 처음으로 떨어질수 있다고 경종을 울리였다.

요컨대 미국이 멈춰설줄 모르고 끊임없이 증대되는 방대한 예산적자와 군사비지출로 하여 조만간에 망할수 있다는것이 여론들의 견해이다.

그렇다. 갈수록 험산이라고 미국이 날을 따라 더욱 악화되고있는 재정적자, 채무문제로 하여 망하게 되는것은 시간문제이다.

본사기자 채일출

세계상식

세계의 자전거도시들

최근년간 연료가격이 계속 뛰여오르고 환경보호문제가 인류의 생존과 관련되는 국제적인 관심사로 제기되면서 세계적으로 자전거를 주요교통수단으로 리용하는 도시들이 늘어나고있다.

세계 제1위의 자전거도시로 불리우고있는 네데를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는 통근자의 40%가 자전거를 리용하고있으며 시내의 곳곳에는 자전거임대소들이 있다. 앞으로 시내의 주요철도역들에 대규모의 자전거주차시설이 건설될 계획이라고 한다.

단마르크의 꾀뻰하븐에서는 주민의 32%가 정상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고있으며 꼴롬비아의 보고따에서는 자전거가 필수적인 교통수단으로 되고있다. 이 도시에서는 주에 하루씩 자동차도로에서 일체 자동차통행을 금지하고 자전거 등을 탄 사람들만 통행시키고있다.

카나다의 몬트리올에서는 자전거리용을 장려하는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건설비용으로 1억 3 400만US$를 지출할것을 계획하고 현재까지 연장길이가 3 861km에 달하는 자전거도로를 건설해놓았다.

자전거리용자들을 위한 전용도로를 건설해놓은 스위스의 바젤에서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자전거임대소에서 자전거를 빌려 리용하게 하고있다. 도시중심을 에도는 자전거륜환도로가 건설된 에스빠냐의 바르쎌로나에는 100여개의 자전거주차장이 있다고 한다.

노르웨이의 트론드헤임에서는 자전거리용에서 가장 난문제로 제기되는 올리막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키장과 같이 자전거승강기를 설치하여놓음으로써 자전거리용자들이 언덕길로 올라갈 때 자전거발디디개를 밟지 않아도 된다.

견장의 유래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나라들과 지역들에서 군사관등급제도가 실시되고있다.

직제상의 등급과 병종같은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어깨에 견장을 단다.

그러면 견장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옛날에 군인들의 갑옷어깨부위에 긴 금속띠를 대주었는데 이것은 적수의 검공격으로 인한 부상을 막도록 하기 위한것이였다. 그후에 금속띠는 군인들이 보총을 어깨에 멜 때 군복이 닳는것을 방지하는 《보호물》로 되였다고 한다. 세월이 흐르면서 금속띠는 서로 다른 형식으로 만들어졌으며 여기에 도안까지 첨부되면서 군인의 등급과 군대의 병종을 구별하는 표식으로 되였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견장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이러한 견장을 한쪽어깨우에만 달았는데 18세기부터 군인들의 량쪽어깨에 다같이 견장을 달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본사기자

ㄱ-010464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실 321-4328. 편집위원회